

碩士學位請求論文

英語 強勢 規則의 活用

指導教授 金 順 澤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金 祚 鉉

1992年 8月

英語 強勢 規則의 活用

指導教授 金 順 澤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金 祚 鉉



金祚鉉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2年 7月 日

審査委員長

高

泰

洪



審査委員

김

은

희

審査委員

金

중

환



〈抄 錄〉

英語 強勢 規則의 活用

金 祚 鉉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英語敎育專攻

指導敎授 金 順 澤

Chomsky & Halle(1968)의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이전의 구조주의에서는 강세를 각 단어가 가지는 고유의 특성으로 보고 이를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한 바 있다. 반면에 SPE에서는 처음으로 영어 강세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토대로 강세 규칙을 설정하여 강세 현상을 지극히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분류학적 방법에 의한 구조주의 언어학에서의 강세 습득 과정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비해 변형 생성 음운론은 변형 순환의 원리에 의해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본고는 구조주의와 변형 생성 음운론의 강세에 관한 기술 방법과 강세 분석의 관점을 알아보고, SPE를 근거로 주강세규칙 등 11가지의 규칙을 설정하여 교육현장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규칙의 활용을 위해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High School English Book 1*)의 색인(index)에 나온 단어들을 강세 규칙에 적용시켜 보았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5
1. 구조주의 언어학의 강세이론	5
1) 구조주의 언어학의 특징	5
2) 강세 분석의 관점	7
2. 변형생성 언어학의 강세 이론	12
1) 변형생성 문법의 특징	12
2) 강세 분석의 관점	14
III. 강세규칙과 활용	19
1. 강세의 요인	19
1) 음절 구조	19
2) 파생 구조	21
3) 구문 구조	25
2. 주장세규칙	25
1) 동사인 경우	26
2) 형용사인 경우	29
3) 명사인 경우	31
IV. 확대 강세규칙과 활용	38
1. 접미어 강세규칙	38
1) 중립접미어인 경우	39
2) 특수접미어인 경우	40
3) 보통접미어인 경우	42

2. 접두어 강제규칙	52
1) 의존어간인 경우	52
2) 자립어간인 경우	54
3) 품사전환어인 경우	58
3. 교체강세규칙	61
4. 복합어 강제규칙	66
5. 핵강세규칙	68
V. 결 론	76
참고문헌	80
Abstract	83
부록 I . 강제규칙의 적용실태	87
부록 II . 강세에 영향을 미치는 접사 목록	93



I. 서 론

언어는 인간 상호간의 의사를 원활히 소통하게 해주는 수단이다. 이같은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향상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어의 효율적인 교육은 외국어 교육의 4가지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종합적인 이해와 의사소통능력을 원활하게 기르는 데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도 문법과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방식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인간 상호간의 의사전달에 기본이 되는 듣기와 말하기를 지도하는데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언어를 듣고 말하여 의사소통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은 음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언어에 사용되는 소리들은 어느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외국어의 발음에 익숙해 지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우리말과 영어는 음운이나 형태, 구조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한번 잘못 습득된 외국어 발음은 굳어진 발음이 되어 고치기가 매우 힘들므로 외국어를 습득할 때는 모국어의 습득이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습관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발음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발음교육 가운데서도 의미의 차이를 초래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자음과 모음 즉, 분절음소(segmental phonemes)에 대한 교육은 많이 강조되어 왔으나 자음과 모음을 벗어나 초분절음소(suprasegmental phonemes)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 한국어가 음절의 수가 발음 소요시간을 좌우하는 음절박자어

(syllable-timed language)인데 반해 영어가 음절의 수와 관계없이 주된 강세의 수에 의하여 발음 소요시간이 정해지는 강세박자어(stress-timed language)¹⁾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분절음소에 대한 정확한 발음지도보다도 분절음소에 얽혀서 의미의 변화를 나타내는 강세, 음조, 연접 등의 초분절음소에 대한 지도가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각 나라의 언어는 억양과 강세형에 기초를 둔 그 언어 특유의 특징 있는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국어 화자(native speaker)처럼 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억양과 강세형을 습득하는 것이 자음과 모음의 정확한 발음지도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초분절음 가운데 하나인 강세는 Jones(1957)도 지적한 바와 같이 소리나 음절이 발음될 때 따르는 강도²⁾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강세에 대한 이같은 견해는 많은 언어학자들에게 받아 들여지고 있는데, 특히 Trager & Smith(1957)는 강세의 특질을 소리의 강도나 크기로³⁾, Kenyon(1958)은 소리의 크기 뿐만 아니라 음도와 음의 길이의 변화도 강세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강한 강세는 인접된 음절보다 뛰어나게 발음되는 음절의 탁립도(prominence)라고 언급하고 있다.⁴⁾ 또한 최근에 전개된 생성음운론에서도 강세의 특징은 소리의 크기

1) Daniel Jones(1957),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Cambridge:W.Heffer & Sons Ltd, p.2

2) *Ibid.*, p.245.

3) George L.Trager & Henry L.Smith, Jr.(1957),*An Outline of English Structure*, Studies in Linguistics, Occasional papers, No.3, Washington: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pp.35-39.

4) John S. Kenyon(1958), *American Pronunciation*, Ann Arbor : George Wahr Co., pp.81-82.

(loudness)나 탁립도에 있다고 규정하고 그 규칙성을 규명하고 있다.
5) 이와 같은 관점들을 종합해 볼 때 강세란 발생된 소리의 크기로서 두 음절 이상의 낱말을 발음할 때 그 강도에 따라 강세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영어에서는 강세가 영어 발음에 중요한 열쇠가 될 뿐만 아니라 의미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가진 강세를 배울 때 영어를 학습 대상으로 하는 학습자들은 모든 단어를 대상으로 암기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영어 단어의 어디에, 어떤 규칙을 적용하면 쉽게 강세가 배당되는지를 알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Chomsky & Halle(1968)의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이하 SPE라 약함) 이전의 구조주의에서는 강세는 각 단어가 갖는 고유의 특성으로 보고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한 바 있다. 반면에 SPE에서는 처음으로 영어 강세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토대로 강세 규칙을 설정하여 불규칙적인 것으로 생각되던 강세 현상의 실상을 지극히 규칙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어 단어에서 발견되는 강세를 중심으로 강세 배당 현상을 규칙화시켜 보고 이 강세규칙을 학교 교육현장에 어떻게 적용시켜 강세지도를 하는 것이 좋은지를 밝혀보기로 하겠다. 강세 현상의 이론적 규칙화는 SPE에 근거하지만 실제 강세지도를 위해서는 그보다 간결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다시 설명하여 현장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강세현상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강세에 관한 구조주의와 변형 생성음운론의 기술 방법과 강세 분석의 관점을 알아보고, III장

5) Noam Chomsky & Morris Halle(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 Harper and Row, pp.68-70.

에서는 강세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인 음절구조, 파생구조 및 구문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 1강세를 결정하는 주장세규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IV장에서는 주장세규칙의 변형된 형태들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V장에서는 앞서 논한 내용을 정리하여 강세 규칙을 요약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부록 I에서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High School English Book 1*)의 색인(Index)에 나온 단어들을 통해 규칙을 활용하여 보았고, 부록 II에서는 강세를 결정하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중요한 접두어 및 접미어를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영어의 운율적 자질(prosodic features)의 하나인 강세를 이전에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주의 언어학의 분류음운론적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고, 그에 따른 영어 강세 분석의 관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문장을 규칙의 체계로 기술하는 생성문법적 입장을 간단히 살피고, 그에 따른 영어 강세 분석의 관점을 변형 순환의 원리에 입각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1. 구조주의 언어학의 강세 이론

1) 구조주의 언어학의 특징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의 토대는 인류학자 Boas(1853-1942)가 아메리칸 인디언어를 기술하기 시작한 때부터 Sapir(1925)의 *Sound Pattern in Language*를 거쳐 Bloomfield(1933)의 *Language*에 와서 굳건히 세워졌다.

그들의 입장은 Joos(1961)의 명구, "Text signals its own structure"⁶⁾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언어자료로서의 발화 속에는 그것을 분석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특징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서만 모든 문법 구조를 귀납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구조언어학에서는 발화의 기초라고 생각되는 음성부문을 엄밀하고 세밀하게 분석한다. 먼저 음의 흐름(현실의 발화)를 단음(phone)으로 구분(segment)하여, 단음의 무리를 음소로 분류하고, 음

6) Martin Joos(1961), "Linguistic Prospects in the United States" *Trends in European and American Linguistics 1930-1960*, Mohrmann et al. eds., p.17.

소의 연쇄(sequence)를 의미를 갖는 최소형태(morph)로 구분하고, 최소형태의 무리를 형태소로 분류하며, 형태소가 연결된 무리를 문법상의 직접 구성성분(immediate constituent)으로 분류한다. 이와 더불어 구조주의 언어학은 엄격한 계층을 정하여 하나의 계층을 다 분석하고 상위 계층으로 넘어가는 상향식 분석 방법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음운론을 제일 먼저 기술하고 그 다음 형태론을 기술하며 마지막으로 구문론 분석을 한다.

그 같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저변에 깔려 있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의 기술적 연구에는 역사적 고찰을 넣어서는 안된다.

둘째, 각 언어는 다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독특한 구조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지조사(field work)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시켜야 한다.

셋째, 언어는 기본적으로 말이다(Language is primarily speech)라는 입장에서 언어의 연구는 음성상에 실현되는 것을 기술하고 음소로 분류하여 그 다음 morpheme→word→phrase→sentence로 계층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즉 낮은 계층에서 시작하여 높은 계층으로 구축해 나간다.

또한 구조주의 언어학은 행동주의 심리학 이론에 기초를 두고 배운다는 것을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즉, 어떤 특정한 표현은 특별한 자극을 주어야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배워진다는 것이다.⁷⁾ 문장을 익히기 위해서는 반복과 숙달을 통해 그것도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은 그 기술의 대상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말에 두고 있으며 과거의 언어 경험과 이에 연유하는 기

7) Leonard Bloomfield(1933), *Language*,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pp.24-31.

역 또는 유추(analogy)로서 언어 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 Bloomfield(1933)에 의하면 인간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언어 표현(utterance)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he utters them on the analogy of similar forms which he has heard"⁸⁾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2) 강세 분석의 관점

이제 이같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관점이 강세 분석을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알아 보겠다.

구조주의 언어학은 영어강세를 설명할 경우에도 분류학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 입장은 Trager & Smith(1957), Nelson(1958), Hockette(1958), Gleason(1961) 등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영어의 강세 음소에 등급을 정하여 기술하고 있다. 4등급으로 보는 대표적인 학자는 Trager & Smith(1957)⁹⁾이고, 3등급으로 보는 대표적인 학자는 Hockette(1958)¹⁰⁾를 들 수 있다.

Trager & Smith(1957)의 이론은 오늘날 영어 교육을 위하여 거의 표준이라고 생각되리 만큼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이다. 그는 강세와 음도를 구분하여 강세는 소리의 강도(intensity)를 규정짓고, 음도는 소리의 높이를 규정짓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강도의 상대적 정도에 따라 제 1강세(primary stress: / ' /), 제 2강세(secondary stress: / ^ /) 제 3강세(tertiary stress: / ` /), 약강세(weak stress: / ~ /)로 구분한다. 또한 제 1강세와 제 2강세를 주강세(major stress)로, 제 3강세와 약강세를 부강세(minor stress)

8) *Ibid.*, p.275.

9) G.L.Trager & H.L.Smith, Jr.(1957), *op.cit.*, pp.35-39.

10) Charles F. Hockette(1958), *A Course in Linguistics*, New York : The Macmillan Co., pp.47-52.

로 분류한다. 여기서 주강세를 받는 음절의 모음은 강하고 크게 발음되고, 부강세를 받는 음절의 모음은 약하고 빨리 발음된다. 또한 주강세를 받는 음절에서는 음도가 높아지고 부강세를 받는 음절에서는 음도가 낮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Hockett(1958)는 Trager-Smith(1957)의 제 1강세 / ' /와 제 2강세 / ^ /를 / ' /로 통합하여 / ' , ' , ^ /의 세가지 강세 음소를 인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제 1강세 / ' /는 음조의 중핵에 오는 강세이며 다른 위치에 오는 / ' /, 즉 Trager-Smith(1957)에 해당하는 / ^ /는 / ' /의 유음(allophone)이다.

여기에서는 음운현상을 더욱 세밀하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언어학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Trager & Smith(1957)의 강세 체계를 따라 기술하기로 하겠다.

영어의 강세형은 강세가 단어의 음절에 오는 고정적인 어강세(word stress)와, 구 또는 어군(word group)에 오는 구강세(phrase stress), 문장 안의 여러 단어 중에서 그 중요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문강세(sentence stress)로 나눌 수 있다.¹¹⁾

어강세(word stress)는 단어의 음절을 구분해 주는 강세를 말하며 음절강세라고 하기도 한다. 영어 단어의 각 음절은 각각 다른 강도의 음의 세기로 발음된다. 그리고 단음절어는 독립적으로 그 유일한 모음에 제 1강세를 받는다. 모든 단음절어에서 구문밖에서 독립해 발음될 때는 제 1강세를 받지만 대체로 강세 표시를 하지 않는다.¹²⁾

11) 어강세를 본래강세(innate stress), 구강세와 문강세를 합하여 의미 강세(sense stress)라 부르는 학자도 있다. 전자는 Kenneth L. Pike(1945:84) 후자는 John S. Kenyon(1958:87)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12) Arthur J. Bronstein(1960), *The Pronunciation of American English : An Introduction to Phonetics*, New York : Appleton - Century - rofts, Inc., p.249.

Daniel Jones(1957)에 따르면 2음절어는 반드시 어느 한 음절에 강한 강세가 주어지는데, 첫째, 앞의 음절에 제 1강세가 오는 것, 둘째 뒤의 음절에 제 1강세가 오는 것, 셋째 앞뒤 음절에 다같이 제 1강세가 오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의 경우 뒷음절에 약강세및 제 3강세가 오는 경우가 있어 (1)과 같이 4가지의 강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¹³⁾

(1)(a). / ' + ^v / : fáthér láy yéllow íntó Súnđáy

(b). / ' + ^v / : syntàx cóntènt súspèct bóokcàse

(c). / ^v + ' / : bэфóre Júly ágó áwáy bécáuse

(d). / ' + ' / : thírteen fóurteen fíftéen réjóin

복합어 강세(compound stress)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자유형으로 구성된 복합어로 대개 제 1강세와 제 3강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앞 부분에 다같이 제 1강세가 오는 것, 둘째 뒤 부분에 제 1강세가 오는 것, 셋째 앞뒤에 다같이 제 1강세가 오는 것 등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째의 유형은 주로 복합명사에, 둘째의 유형은 주로 복합동사 또는 복합대명사에, 셋째 유형은 주로 복합형용사에서 나타나고 있다.¹⁴⁾ 그 유형을 들면 (2)와 같다.

13) Daniel Jones(1957), *op.cit.*, p.248.

14) Hans Kurath(1964), *A Phonology and Prosody of Modern English* Ann Arbor, Mich.: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p.143-145.

- (2)(a). / ' + ` / : bláckbòard bóokcàse ráinfáll bréakfàst
 (b). / ' + ^v / : Chrístmàs géntlemán físhermán
 (c). / ` + ' / : ùnderstánd ùndergó òverláp òutrún
 (d). / ' + ' / : sécond-hánd góod-lóoking óld-fáshioned

구강세(phrase stress)는 모든 단어가 개별로 발음될 때 하나의 제 1강세를 받지만 유의적인 어군이나 문장 가운데서 발화될 때는 의미 강세가 주어진다. 구강세는 최소의 의미강세로 두어(head word)와 수식어(modifier)의 위치에 관계 없이 대체로 /[^] + ' /의 강세형을 갖고 있어서 개별단어에 비해서 제 2강세의 현상이 뚜렷하다.¹⁵⁾ (3)과 같은 단어들이 그 좋은 예이다.

- (3) (a). 수식어(modifier)+두어(head word) : /[^] + ' /

E.g. a góod stóry a gláss dóor a líttle tíred

- (b). 두어(head word)+수식어(modifier) : /[^] + ' /

E.g. bríghter than the sún a lábour of lóve

- (c). 두어(head word)+두어(head word) : /[^] + ' /

E.g. sòns and dáughter còme and gó dáy or níght

문강세(sentence stress)는 문장 내에 여러 단어 중에서 그 중요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세로 어강세나 구강세가 비교적 고정적인데 반하여 그 양상이 다양하며 일정한 규칙을 설정하기가 매

15) *Ibid.*, pp.139-140.

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화자와 청자간에 야기되는 내적, 심리적 요인과 표출된 문장구조의 외적 운율상의 요인이기 때문에 대체로 일반 문장의 경우 내용어(content word)에는 주강세, 기능어(function word)에는 부강세가 주어진다.¹⁶⁾

한 문장 내에서 내용어가 2개 이상일 때 대체로 맨 뒤의 내용어에 만 제 1강세가 오고 나머지 내용어에는 제 2강세가 오는데 제 1강세가 주어지는 부분은 반드시 가장 강한 음조(pitch)를 동반하며 다른 강세어보다 훨씬 강한 탁립도(prominence)를 보인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의사단락(thought group)으로 구분될 때는 각기 제 1강세가 올 수 있다. 위의 내용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4)와 같다.

(4) (a). Whát dō yōu thínk of the wéather?

(b). J[^]ohn w[^]ent h[^]ome

I[^] h[^]ave á r[^]acket ín my r[^]íght h[^]ánd.

(c). H[^]áste / mákes w[^]áste.

Ís thís á b[^]át / or á st[^]íck?

지금까지 구조주의 언어학의 강세 접근 방법을 살펴 보았는데 이 방법의 요점은 강세를 네 가지로 분류하여 이를 숫자표시에 의해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16) Clifford H. Prator(1957),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p.28.

2. 변형 생성 언어학의 강세 이론

1) 변형 생성 문법의 특징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언어이론의 개발에 나선 것이 변형 생성 언어학이다. 변형 생성 언어학자들의 슬로건은 구조주의와는 정반대로 언어의 내면에 숨어 있는 규칙성을 통찰함으로써 외형을 정확하게 또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언어에 대한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의 경험적인 연구태도를 거부함으로써 언어자료(corpus)를 분석하여 언어구조를 객관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모든 문장을 구조적으로 특징지우는 규칙체계로 기술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변형 생성 언어학의 대표인 Chomsky(1957)의 다음과 같은 언어에 관한 견해에 잘 집약되어 있다.

One requirement that a grammar must certainly meet is that it be finite. Hence the grammar cannot simply be a list of all morpheme(or word) sequences, since there are infinitely many of these. A familiar communication theoretic model for language suggests a way out of this difficulty.¹⁷⁾

문장의 수는 무한한 것이지만 이는 유한한 규칙체계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칙체계를 잘 기술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변형 생성 언어학의 본질은 인간 언어의 창조적 특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창조적 특성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17) Noam Chomsky(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 Moulton p.18.

방법은 규칙의 체계인 문법이 언어의 무한성을 포용할 수 있는 문법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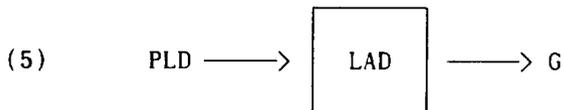
어떤 문법이 좋은 문법인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문법은 어떤 형태의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대답으로 Chomsky(1964)는 *Current Issues in Linguistic Theory*에서 다음과 같이 세 단계의 타당성을 들고 있다.

첫째는 관찰적 타당성(observational adequacy)만을 가지는 문법이다. 만약에 어떤 문법이 관찰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한다면 주어진 자료를 모두 생성할 수 있음을 말한다.

둘째는 기술적 타당성(descriptive adequacy)을 가지는 문법이다. 이는 주어진 자료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모국어 사용자의 언어적 직관(linguistic intuition)을 정확히 기술하는 문법이다. 관찰적 타당성만 가지는 문법보다 더 좋은 문법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셋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형태의 문법은 설명적 타당성(explanatory adequacy)을 가지는 문법이다. 이는 언어자료와 몇 개의 가능한 문법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모국어 사용자의 언어적 직관에 맞는 문법의 선택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문법이다.

인간의 언어습득을 Chomsky는 (5)와 같은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즉 언어습득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부를 수 있는 어린이는 1차적 언어자료(Primary Linguistic Data)가 주어졌을 때 자기의 언어 직관에 맞는, 즉, 기술적 타당성을 가지는 문법(Grammar)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관찰적 타당성을 가진 문법은 주로 LAD에 대한 입력

즉 PLD에 관련되는 문법이고, 기술적 타당성을 가진 문법은 LAD의 출력 즉 G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설명적 타당성을 가진 문법이란 PLD를 근거로 하여 기술적 타당성을 가지는 G를 만들어 내는 LAD자체에 대한 문법이다. 구조주의 언어학이 주로 관찰적 타당성을 갖는 문법이고, 소위 전통문법이라는 것이 기술적 타당성을 갖는 문법이라 하겠다. 예컨대 Chomsky & Halle(1968)의 SPE는 그 전부가 문법에 보다 설명적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2) 강세 분석의 관점

표준생성음운론은 구조주의 음운론과는 달리 영어의 강세를 음절구조, 파생구조, 구문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발음현상¹⁸⁾으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강세현상을 설명하면서 변형순환(transformational cycle)의 원리를 설정하고 있다. 강세를 강도에 따라 몇 단계로 정하여 단어, 구 및 문장의 강세를 고려하던 단순한 음운적 기술 방법에서 벗어나 순환규칙(cyclic rule)의 적용을 통해 강세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생성음운론의 새로운 공헌이라고 할 수 있는 순환규칙은 규칙이 순서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Chomsky-Halle(1968)에 의해서 제시된 음운규칙 적용의 방법론으로, 그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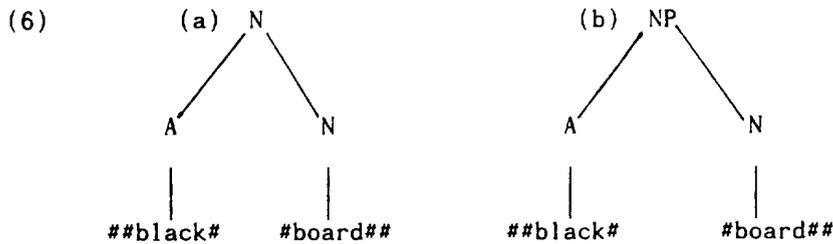
The phonological rules first apply to the maximal strings that contain no brackets, and that after all relevant rules have applied, the innermost brackets are erased; the rules then reapply to maximal strings containing no brackets are erased after this application; and so on, until the maximal domain of phonological processes is reached.¹⁹⁾

18) N. Chomsky(1968), *op.cit.*, pp.6-14.

19) *Ibid.*, p.15.

즉 표층구조를 괄호 매김의 연쇄(string)라 할 때 음운규칙은 괄호를 내포하지 않는 최대의 연쇄에 우선 적용되고, 그 후 제일 안에 있는 괄호가 지워지며 그리고는 다시 괄호를 내포하지 않는 최대의 연쇄에 규칙들이 적용되어 또 다시 제일 안에 있는 괄호가 없어지는 방식으로 설명이 된다. 다시 말해서 [A[B[C[DE]F]G]H]라는 구문이 주어졌을 때 음운규칙은 [DE]에 맨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 []를 지우면 생기는 [CDEF]에 같은 규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엔 []를 지우면 주어지는 [BCDEFG]에 다시 같은 규칙이 적용되고, 마지막으로 []를 지움으로서 주어지는 최대의 연쇄인 [ABCDEFGH]에 적용된다. 이때 최초의 순환에서 DE가 D'E'로 바뀌었다면 제 2순환으로 들어가는 연쇄는 CDEF가 아니라 CD'E'F이며, 제 2순환에서 이 CD'E'F가 C'D'E'F'로 바뀌면 제 3순환에 들어가는 연쇄는 당연히 BC'D'E'F'G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영어의 blackboard와 black board란 단어를 살펴보자. 두 단어는 형용사와 명사로 연결되어 비록 순서는 똑같이 배열되었지만 그 구조는 (6)과 같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²⁰⁾



앞 구조를 괄호 매김을 이용해서 표시하면 (7)과 같다.

20) *Ibid.*, p. 16.

(7) (a) [N#[A# black #_A][N# board #_N]_N]

(b) [NP#[A# black #_A][N# board #_N]_{NP}]

이같은 구조에서 우리가 바라는 강세 모습인 bl¹ackb³oard와 bl²ack b¹oard를 도출해 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먼저 몇 가지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규칙은 다음의 네 가지로 될 수 있다.

(8) 어휘강세규칙(lexical stress rule)

(9) 복합어강세규칙(compound stress rule)

(10) 핵강세규칙(nuclear stress rule)

(11) 강세조정규칙(stress adjustment rule)

(8)은 주어진 어휘목록에 강세를 부여하는 규칙으로서 단음절어에 서는 모음에 제 1강세가 온다는 것이다. (9)는 복합명사에서 강세를 가진 단어가 둘 이상 올 때 가장 왼쪽에 있는 제 1강세를 가진 단어에 다시 제 1강세를 부여하는 규칙이다. (10)는 한 명사구 안에 제 1강세를 가진 단어가 둘 이상 있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제 1강세를 가진 단어에 제 1강세를 배당한다는 규칙이다. 또한 (8), (9), (10)규칙에는 제 1강세가 재배당되지 않은 강세는 그 강도가 하나씩 낮아진다는 규약을 가지고 있다. (11)은 동일 어휘 내에서 제 1강세를 받지 않은 강세는 그 강도가 자동적으로 한 단계씩 낮아진다는 것이다.

규칙 (8)과 (9) 및 (9)의 규약, 그리고 규칙 (10)을 적용시켜 blackboard는 다음과 같이 생성된다. 즉, 변형순환규약에 의해 우선 괄호를 내포하지 않는 가장 최대 연쇄인 [A# black #_A]과 [N# board #_N]에 규칙 (8), (9), (10)을 적용시킨다. 이 연쇄가 만족시키는 것은

우선 규칙 (8)이므로 규칙 (8)을 적용시켜 $[A\# \text{bl}^1\text{ack}\#A]$ 과 $[N\# \text{bo}^1\text{ard}\#N]$ 를 얻는다. 여기서 순환규약에 의해 괄호를 없애버리면 $[N\# \text{bl}^1\text{ack}\#\#\text{bo}^1\text{ard}\#N]$ 만이 남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순환의 모습이다. 여기에 또다시 규칙 (9)를 적용시켜 bl^1ack 이 제 1 강세를 받고 나면 그 규칙의 규약에 의해 bo^1ard 는 한 단계 내려간 bo^2ard 이 되며, 여기에 규칙 (11)를 적용하면 $\text{bl}^1\text{ack}\ \text{bo}^3\text{ard}$ 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text{bl}^2\text{ack}\ \text{bo}^1\text{ard}$ 는 규칙 (8)과 (10)에 의해 올바르게 유도된다. 먼저 규칙 (8)을 적용시키면 $[NP\#[A\# \text{bl}^1\text{ack}\#A][N\# \text{bo}^1\text{ard}\#N]\#NP]$ 를 얻게 된다. 여기에서 괄호를 지워버리면 $[NP\# \text{bl}^1\text{ack}\#\#\text{bo}^1\text{ard}\#NP]$ 만이 남는데 이것이 두 번째 순환규칙의 적용을 받기 위한 모습이다. 여기에 규칙(10)을 적용시키면 $\text{bl}^2\text{ack}\ \text{bo}^1\text{ard}$ 라는 최종 형태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순환규칙은 하나 이상의 괄호로 둘러싸인 연쇄체의 가장 안쪽의 괄호에서부터 음절규칙이 적용되고, 적용된 후에는 괄호가 하나씩 지워지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같은 성격의 순환규칙은 적어도 다음의 정보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첫째, 주어진 음의 연쇄자 그 구성 요소에 있어 동일할지라도 표층구조로 생성되어 나온 과정의 차이에 따라 그 음성적 표현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복합명사와 명사구에서처럼 연결된 순서가 같다 하더라도 표층구조는 다르며 그 같은 차이에 의해 강세의 최종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규칙이 각 순환에 적용되는 방법은 구문단위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²¹⁾ 즉, 규칙은 단어의 단계를 넘어 구나 문장 등 점차적으로 큰 구성요소에 계속해서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표준생성음운론의 다른 모든 자질은 +, - 로 표시되는 양분법(dichotomy)에 의한 이원적(binary) 성격인데 반해 강세 자질(stress features)에 대해서만은 1, 2, 3, 4 따위의 다원적 대립으로 표시되어 단계적인 값어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강세규칙의 적용순이 이접적(disjunctive) 순서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조건에 따라 최초의 규칙에 적용 대상이 되는 단어는 결코 다음에 오는 규칙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반면에 최초의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단어는 두 번째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바꿔말해서 두 규칙이 있을 때 처음 규칙을 먼저 적용하고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에만 두 번째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21) Sandford A. Schane(1973), *Generative Phon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103.

Ⅲ. 강세규칙과 활용

본 장에서는 강세의 요인이 되는 음절구조, 파생구조, 구문구조를 살펴보고 표준생성음운론에서 강세 규칙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변형 순환의 원리에 의해 구체적인 단어들의 강세 규칙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1. 강세의 요인

1) 음절 구조

우선 강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음절구조를 들 수 있다. 음절 구조는 소리의 집단인 음군(sound cluster)으로 형성되는데 한 개의 음군 안에는 반드시 모음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음은 전혀 나오지 않거나 한 개 혹은 2개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음군은 한 개의 음군 안에 모음과 자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면 모음이 자음 앞에 온다.

음군은 강음군(strong cluster)과 약음군(weak cluster)으로 구분된다.²²⁾ 강음군은 모음이 긴장모음(tense vowel)(이중모음과 장모음 포함)이거나 긴장모음이 아니더라도 자음을 2개 이상 가진 자음군으로 구성된 음군을 말한다. 약음군은 모음이 이완모음(lax vowel)이고 자음이 없거나 하나만 있어 자음군을 갖지 않은 음군을 말한다.

그런데 음군을 이처럼 두가지로 구분할 때는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²³⁾

22) N. Chomsky(1968), *op.cit.*, p.29.

23) *Ibid.*, pp.44-55.

첫째, 음군 설정시 고려 대상인 기저형(underlying phonological representation)은 전통 철자(conventional orthography)와 일치하며, 단어의 마지막에 오는 자음 다음의 묵음(final silent) 'e'는 강세 배당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철자로 '자음+r'은 자음군으로 보지 않고 자음 하나로 본다. 예를 들어 sacred의 cr은 자음 하나로 간주한다.

셋째, 철자로 '자음+자음'은 실제 발음에서 자음 하나로 나타나더라도 자음군으로 본다. 예컨대 discuss의 ss, autumn의 mn, prolong의 ng등은 자음군으로 간주한다.

넷째, 실제 발음에 있어서 단어의 마지막에 장모음류의 긴장모음([iy], [uw], [ow])이 오고 그 모음이 한 자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 이를 이완모음으로 간주한다. 즉, Hindu의 'u'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섯째, 실제 발음에서는 긴장모음으로 나는 모음이라도 그 모음이 다른 모음 바로 앞에 오면 이를 대개 이완모음으로 간주한다. 이를테면 India의 'i'가 그것이다.

여기서 이완모음은 pit, pet, pat, put, putt, analyze에 나타난 단모음으로서 [i, e, u, ʌ, ə]로 표기되고, 강모음은 confide, feed, fade, feud, road에 나타난 이중모음[ay, iy, ey, yuw, ow]의 음가가 지칭하는 알파벳의 대문자 I, E, A, U, O로 표기한다.

이제 약음군을 W, 강음군을 S로 표기하면 어휘들의 음절구조는 (12)와 같다.

(12) erase - ErAs - SS	mutation - mUtAsən - SSW
irate - IrAt - SS	cupidity - kUpiditE - SWWS
collapse - kɔlæps - WS	maintain - mAntAn - SS

이러한 음절구조에 의한 강세형의 결정은 단어가 몇개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는냐에 따라 강세의 위치가 달라진다.

2) 파생 구조

영어 단어의 강세형은 게르만계인 토착어계의 어강세와 외래계의 어강세가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강세의 위치가 다양하고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만큼 파생구조는 강세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이다.

Robert(1958)에 의하면, 영어의 어휘 중 토착어(native word)는 14%에 불과하고, 외래어인 Latin어가 36%, 불어가 21%를 차지하고 있다. 영어의 파생어는 토착어에다 접두어나 접미어를 첨가하여 형성하고 있는데, 이같은 단어의 파생구조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접두어, 접미어, 어간, 단어, 품사전환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어간(stem)은 자립어간과 의존어간으로 나뉜다. 자립어간은 독립된 하나의 단어로 쓰일 수 있는 어간을 말하며 의존어간은 접두어나 접미어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단어의 구실을 하고 홀로는 단어를 이루지 못하는 어간을 말한다.

예를 들면 biochemistry나 journalist는 접두어와 접미어를 떼면 -chemistry, journal-과 같이 하나의 독립된 단어로 쓸 수 있으므로 자립어간이다. 그러나 consist의 어간 -sist나 pertinent의 어간 pertin-은 홀로 단어를 이루지 못하고 항상 접두어나 접미어의 도움을 받아야 단어의 구실을 하므로 의존어간이다. 특히「접두어+어간」의 구조를 갖는 단어가 명사나 형용사이면 대부분의 경우 그 어간은 자립어간이며, 동사이면 십중팔구 그 어간은 의존어간이다. 예를 들면 democrat의 -crat, paradox의 -dox, paragraph의 -graph등은 자립어간이며, transfer의 -fer, exceed의 -ceed, explain의 -plain 등은

의존어간이다. 또한 「단어+단어」로 되어 있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복합어(compound word)로 취급되나 over-, under-, out-, down-, up-등으로 시작하는 동사는 대체로 「접두어+어간」의 형태로 취급한다. 예를 들면 overwhelm, understand 등의 over-와 under-는 접두어이고, -whelm이나, -stand는 의존어간이다.

접미어는 중립접미어, 특수접미어, 보통접미어로 구분된다. 중립접미어는 강세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접미어이며 특수접미어는 외래어적인 인상을 풍기는 접미어로서 단어의 수도 비교적 적으나 그 접미어 자체에 제 1강세가 주어지는 접미어로서 강세형 결정요소가 된다. 보통접미어는 완전히 영어에 동화되어 외래어적인 인상을 주지 않는 접미어로서 강세형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며 중립접미어와 특수접미어를 제외한 모든 접미어가 이에 속한다. 이들 접미어의 대표적인 것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3) 중립접미어의 형태와 단어

-ness(narrowness, sadness) -hood(childhood, boyhood)
 -er(deliverer, examiner) -or(educator, conductor)
 -ist(communist, journalist) -ism(communism, journalism)
 -ment(arrangement, government) -ly(cowardly, beautifully)
 -wise(likewise, otherwise) -like(childlike, workmanlike)
 -y(gloomy, yellowy) -(e)r(cleverer, sincerer)
 -ish(devilish, yellowish) -able(preferable, recoverable)
 -(e)st(cleverest, sincerest) -(e)s(boys, churches)

(14) 특수접미어의 형태와 단어

-ade(brigade, promenade) -aire(millionaire, billionaire)

-ee(refugee, employee) -eer(engineer, profiteer)
 -ese(Portuguese, Vietnamese) -esque(picturesque, Romanesque)
 -ette(cigarette, brunette) -oo(bamboo, kangaroo)

(15) 보통접미어의 형태와 단어

-al(natural, medicinal) -ance(utterance, resonance)
 -ancy(relevance, resonancy) -ant(resonant, relevant)
 -ar(regular, peculiar) -ate(designate, educate)
 -ence(competence, dependence) -ency(dependency, pertinency)
 -ent(pertinent, dependent) -ic(historic, economic)
 -ical(political, chemical) -ify(purify, identify)
 -ion(protection, examination) -ior(superior, inferior)
 -ity(unity, activity) -ive(positive, recursive)
 -ize(recognize, analize) -ous(tremulous, ridiculous)

지금까지 파생구조를 중심으로 단어의 분류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파생구조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Chomsky & Halle(1968)을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내기로 한다.²⁴⁾

첫째, 접두어와 의존어간 사이, 또는 어간과 특수접미어 사이에는 =표를 한다.

(16) com=pe1 per=mit trans=fer etc.
 block=ade Roman=esque profit=eer etc.

둘째, 의존어간과 보통접미어 사이, 또는 2음절로 된 보통어미가

24) *Ibid.*, pp.64-68.

[N#[v# com=pans+at(e) #v]i+on #N]

3) 구문 구조

앞에서 언급한 음절구조와 파생구조가 단어내에서의 강세를 결정하는 요인인데 반해 구문구조는 단어보다 큰 표현인 구, 절, 문장의 강세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 구문구조는 문장구조라고도 하는데 문장구조의 강세는 언어구조 외에도 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나 감정 등의 주관과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완전한 강세의 위치를 결정하는 규칙을 설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기본적인 강세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구조적인 특성을 분석해 보면 모든 구는 []로 묶고 그 괄호 안 양쪽에 #표를 한 다음 괄호의 양편 밑에 해당되는 구의 이름을 쓴다.

John likes honest girls라는 문장의 구문구조를 표시하면 (21)과 같다.

(21) [s#[NP#[N#John#N][VP#[v#[v#like#v]s#v]#VP][NP#[A#honest#A][N#[N#girls#N]s#N]#NP]#VP]#s]

(S=Sentence, NP=Noun Phrase, A=adjective, N=Noun, V=Verb)

2. 주장세 규칙²⁵⁾

여기에서는 제 1강세의 유도과정을 토대로 품사별로 주장세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 1강세가 어떻게 배당되는지 그 과정을

25) Ibid., pp.69-77.

Morris Halle & Samuel J. Keyser(1971), *English Stress : Its Form, Its Growth, and Its Role in Verse*, New York:Harper & Row, pp.3-14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SPE에서는 파생어의 경우도 주강세규칙의 범위 내에서 다루고 있으나, 필자는 이를 따로 분류하여 규칙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가 수월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간결성과 명시성에 입각하여 세워진 SPE에서의 복잡한 공식은 교육 현장에서는 간단치 않으며 오히려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 평이한 말로 풀어 강세를 설명하고자 한다.

1) 동사의 경우²⁶⁾

다음의 동사들을 보고 거기에 어떻게 제 1강세의 위치를 할당하는지를 주목해 보자.

(22)	(가)	(나)	(다)
	devel ¹ op	av ¹ oid	em ¹ erge
	ab ¹ andon	agr ¹ ee	in ¹ vent
	im ¹ agine	ret ¹ ire	cons ¹ ist
	ex ¹ hibit	appr ¹ ove	coll ¹ apse
	f ¹ urnish	prop ¹ ose	attr ¹ act
	int ¹ erpret	incl ¹ ude	disc ¹ uss
	éd ¹ it	maint ¹ ain	rec ¹ all
	cons ¹ ider	dec ¹ ide	obs ¹ erve
	prom ¹ ise	ach ¹ ieve	ad ¹ apt

26) N. Chomsky(1968), *op.cit.*, pp.69-71.

(22)의 단어들에서 일률적으로 (가)의 동사들은 마지막에서 둘째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와 있는 반면에, (나)와 (다)의 동사들은 마지막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와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둘째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온 (가)의 동사들은 한결같이 약음군으로 끝나고 있고, 마지막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온 (나)와 (다)의 동사들은 모두 그 마지막 음군이 강음군이다. 다시 말해서 (나)의 동사들은 모두 마지막 음군의 모음이 긴장모음을 포함하는 강음군이고, (다)의 동사들은 마지막 음군이 자음군을 포함하는 강음군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제 1강세의 위치와 마지막 음군과의 관계를 (2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3) [1] 동사의 경우에 마지막 음군의 모음이고 이완모음으로 끝나면 마지막에서 둘째 음군의 모음 위에 제 1강세를 배당한다.

[2] 마지막 음군의 모음이 긴장모음이거나 자음군으로 끝나면 마지막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를 할당한다.

이처럼 제 1강세 위치를 배당하는 [1], [2]의 경우를 주강세규칙(Main Stress Rule)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제 (23)의 규칙을 단음절어로 된 동사들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보자.

(24)	(라)	(마)	(바)
	cut r ó b	cr y b ú y	f í nd f á ll

live c¹ome máke híde wínd s¹end
 hítt l¹ove sw¹éep láy húrt síng

먼저 (24)의 (마), (바)인 경우 단어의 마지막 음군이 강음군이면 그 마지막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와야 한다는 앞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24)의 (라)인 경우 약음군으로 끝나는 단어는 마지막에서 둘째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와야 한다는 규칙을 적용시킬 수 없다. 즉, 이 단어들은 약음군으로 끝났으나 그 앞에 제 1강세를 받을 음군이 없으므로 제 1강세는 허공에 뜨는 셈이 되었다.

그러나 동사를 포함한 모든 단음절어를 따로 떼어서(isolated) 발음하면 그 단어가 강음군으로 끝나건 약음군으로 끝나건 그 단어의 유일한 모음에 제 1강세가 온다. 그러므로 (24)의 (라)의 모음에도 제 1강세가 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흔히들 단음절어에는 강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전에서 단음절어의 발음 표기에 강세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단음절어가 강세를 받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단음절어는 언제나 그 유일한 모음에 제 1강세가 오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그 위치에 대한 오해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토대로 앞에서 설정한 규칙을 (25)와 같이 수정되어야 바람직하다.

- (25) [1] 동사가 2음절 이상이고 약음군으로 끝나면 마지막에서 둘째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주어진다.
 [2] 그렇지 않은 경우(단음절어이거나 강음군으로 끝난 경우)는 모두 마지막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주어진다.

따라서 어떤 동사에 강세규칙을 적용하려면 먼저 그 동사의 구조를 파악하여 그것이 주강세규칙의 [1]에 해당되는가 혹은 [2]에 해당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결정되면 제 1강세의 위치는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2) 형용사인 경우

(26)의 형용사들을 보고 그것의 제 1강세의 위치와 음군구조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

(26)	(가)	(나)	(다)
	stúpid	entire	corrúpt
	crúel	precise	absúrd
	sácred	matúre	exáct
	cómmón	remóte	compáct
	quiet	severe	direct
	wéary	extreme	distinct
	yéllow	polite	immense
	bárron	complete	intense
	hándsóme	supreme	abstract
	tímid	secure	convince

(26)의 형용사들에서 마지막 음군을 보면 (가)에서는 모두 약음군

27) *Ibid.*, pp. 79-83.

이고 (나)와 (다)에서는 강음군이다. (나)의 경우는 긴장모음을 포함하는 강음군이고, (다)의 경우는 자음군을 포함하는 강음군이 각 단어의 마지막에 와 있다. 약음군으로 끝나는 (가)의 형용사들은 모두 마지막에서 둘째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와 있고 강음군으로 끝나는 (나)와 (다)의 형용사들은 모두 마지막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 1강세의 위치와 마지막 음군간의 상관관계는 앞에서 살펴 보았던 동사의 경우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단음절 형용사의 강세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 보자. 단음절 동사나 마찬가지로 단음절 형용사도 항상 그 유일한 모음에 제 1강세가 온다. 예를 들면 (27)과 같다.

(27)	g ¹ ood	b ¹ ad	s ¹ ad	f ¹ air
	b ¹ ig	h ¹ ot	th ¹ in	f ¹ ine
	qu ¹ ick	th ¹ ick	s ¹ ick	b ¹ old
	ju ¹ st	fa ¹ st	ni ¹ ce	co ¹ ld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형용사의 제 1강세와 자음군과의 관계도 동사에서와 마찬가지로 (28)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28) [1] 형용사가 2음절 이상이고 약음군으로 끝나면 마지막에서 둘째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를 배당한다.
 [2]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를 할당한다.

지금까지 동사와 형용사에서 나타난 바를 고려하여 이들에 적용할

수 있는 주장세규칙을 만들어 보면 (29)와 같다. 이를 편의상 Rule 1 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29) Rule 1 (주장세규칙)

- [1] 단어가 2음절 이상이고 마지막 음군이 약음군으로 끝나면
마지막에서 둘째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를 배당하고
- [2] 그렇지 않으면(단음절어이거나 강음군으로 끝나면) 마지막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를 할당한다.

3) 명사인 경우²⁸⁾

이번에는 (30)의 명사들을 보고 제 1강세의 위치와 음군 구조와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보고 명사에서의 강세규칙을 설정해 보자.

(30)	(가)	(나)	(다)	(라)
	é ement	hor izon	char isma	dom ain
	co ntinent	id ea	umb rella	mach ine
	d iamond	cas ino	ant enna	fat igue
	é merald	pot ato	Mississ ippi	camp aign
	r adio	tom ato	ver anda	reg ime
	o cean	volc ano	UN ESCO	typ oon
	á lcohol	Ang ola	gor illa	ball oon
	aná lysis	comp uter	vi enna	Bomb ay

28) *Ibid.*, pp. 71-77.

cinema	améba	Apóllo	terrâin
América	bazóoka	moménta	ampère

(30)의 명사들을 살펴 보면 (가)는 제 1강세가 마지막에서 세 번째 음군의 모음에 주어졌고, (나)와 (다)는 제 1강세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음군의 모음에 주어졌으며, (라)는 마지막 음군에 제 1강세가 주어졌다. (나)와 (다)의 명사는 마지막 음군의 모음이 이완모음으로 끝나므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주어져 Rule 1의 [1]를 적용하는 경우와 동일하며, (라)의 명사도 마지막 음군이 긴장모음이므로 Rule 1의 [2]를 적용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30)의 (가) 명사들은 제 1강세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Rule 1를 그대로 적용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즉, (가)의 명사들 중 자음군을 포함하는 강음군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Rule 1의 [2]에 의하여 마지막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를 받고 기타 약음군으로 끝난 것들은 Rule 1의 [1]에 의하여 마지막에서 둘째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를 받아 (31)과 같이 실제 발음과는 다른 강세형을 보이게 된다.

(31) element	continent	diamond	emerald
radio	ocean	alcohol	analysis
cinema	America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명사들의 정확한 제 1강세 위치를 제대로 유도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다.

먼저 (30)의 (나)와 (다)의 명사들을 자세히 보면, 강세를 받은 부분이 (나)의 경우에는 이중모음이나 장모음을 포함하는 강음군이고

(다)의 경우에는 자음군을 포함하는 강음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나)와 (다)의 경우에는 마지막 음군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강세규칙을 적용하여도 제 1강세의 위치는 정확히 유도된다. 그러나 (라)의 명사들은 강음군인 마지막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와야 하므로 주강세규칙을 적용시킬 때 그 마지막 음군을 고려대상에 넣어야만 제 1 강세의 위치가 제대로 구해진다.

다음에는 (30)의 (가)의 명사들을 다시 생각해 보자. 우선 주강세규칙을 적용시킬 때, (30)의 (나), (다), (라)에서 처럼 명사의 마지막 음군이 약음군이면 이를 고려 대상에서 빼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음군도 고려 대상에 넣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30)의 (가) 명사들 중 마지막 음군이 약음군으로 끝나는 것(E.g. radio, ocean, alcohol analysis, cinema, America etc.)은 그 약음군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마지막 음군이 모두 약음군이므로 남은 부분의 마지막에서 둘째 음군(즉, 마지막 음군을 고려 대상에 넣으면 마지막에서 셋째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주어져서 실제 발음과 같은 위치에 제 1강세를 배당할 수 있다. 그러나 (30)의 (가) 중 마지막 음군이 강음군으로 끝나는 것(E.g. element, continent, diamond, emerald etc.)은 그 마지막 음군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였으므로 마지막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주어져 여전히 제 1강세의 위치가 실제 발음과 다르게 유도된다.

그렇다면 강음군으로 끝나는 (30)의 (가)의 명사와 (라)의 명사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서 주강세규칙을 적용할 때 후자의 경우는 마지막 음군을 고려 대상에 넣어야 제 1강세의 위치가 제대로 도출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가)의 명사들 중 강음군으로 끝나는 마지막 음군은 모두 이완모음을 포함하는 강음군인데 반해 (라)의 명사들은 모두 마지막 음군이 긴장

모음을 포함하는 강음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토대로 (32)와 같은 강세규칙을 설정하도록 한다.

(32) Rule 2 (명사 강세규칙)

명사가 이완모음을 포함하는 음군으로 끝나면 그 마지막 음군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만 주장세규칙(Rule 1)을 적용한다.

Rule 2가 타당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30)의 (가), (나), (다), (라)의 모든 명사에 그것을 적용시켜 제 1강세 위치를 유도하는 과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30)의 (가)의 명사는 마지막 음군의 모음이 이완모음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남게 되는데, 거기에 주장세규칙을 적용시키면 남은 부분의 마지막 음군이 모두 약음군이므로 마지막에서 둘째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주어지게 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3) élém___ cóntrin___ díam___ émer___
rádi___ óce___ álcoh___ análýs___
cine___ Améric___

여기에다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마지막 음군을 결합시키면 (가)와 같은 제 1강세의 위치가 결정된다.

다음 (30)의 (나)의 명사들을 보면 모두 마지막 음군이 이완모음을 포함하는 음군으로 끝났으므로 마지막 음군을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남게 되는데, 여기에 주장세규칙을 적용

시키면 모두 마지막 음군이 강음군이므로 마지막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주어진다.

(34) hor¹IZ___ idÉ____ cas¹N___ pot¹AT___
 tom¹AT___ volc¹AN___ Ang¹OL___ comp¹UT___
 am¹ÓEB___ baz¹ÓOK___

여기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마지막 음군을 결합시키면 (30)의 (나)와 같은 제 1강세 위치가 결정된다.

다음 (30)의 (다)의 명사들을 보면 역시 모두 마지막 음군이 이완모음을 포함하므로 이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남게 되는데, 여기에 주장세규칙을 적용시키면 모두 강음군인 마지막 음군에 제 1강세가 주어진다.

(35) char¹ISM___ umbrÉLL___ antÉNN___ Mississ¹IPP___
 ver¹AND___ UNÉSC___ gor¹ILL___ viÉNN___
 Ap¹OLL___ mom¹ÉNT___

여기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마지막 음군을 결합시키면 (30)의 (다)와 일치된 제 1강세 위치가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30)의 (라)의 명사는 마지막 음군이 긴장모음이므로 Rule 2에 의해 이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주장세규칙을 적용시키면 마지막 음군에 제 1강세가 주어진다.

다음에는 단음절 명사와 마지막 음군에 긴장모음이 포함되지 않는 2음절 명사에 어떻게 강세가 할당되는지 알아 보자. 단음절 명사는

모든 단음절어나 마찬가지로 그 유일한 모음에 제 1강세가 온다. 예를 들면 (36)과 같다.

(36)	p ¹ in	p ¹ en	p ¹ an	b ¹ reeze
	t ¹ in	t ¹ en	c ¹ an	n ¹ ame
	h ¹ ut	c ¹ ot	b ¹ ook	m ¹ ilk
	p ¹ ool	c ¹ oal	n ¹ oun	t ¹ ent

2음절 명사가 둘째 음군에 긴장모음을 포함하지 않으면 (즉, 이완모음을 포함하면) 제 1강세는 언제나 첫째 음군의 모음에 온다. 예를 들면 (37)과 같다.

(37)	p ¹ erson	m ¹ edal	dr ¹ agon	w ¹ eapon
	p ¹ alace	v ¹ irgin	exp ¹ ert	o ¹ range
	inf ¹ ant	lan ¹ tern	me ¹ cca	asp ¹ halt

(37)의 명사들은 모두 마지막 음군이 이완모음을 포함하므로 Rule 2를 적용하여 마지막 음군을 제외하면 (38)과 같은 부분만 남게 되는데, 여기에 Rule 1의 [2]를 적용시키면 그 유일한 모음에 제 1강세가 주어진다.

(38)	p ¹ er___	m ¹ ed___	dr ¹ ag___	w ¹ eap___
	p ¹ al___	v ¹ irg___	exp ¹ ___	o ¹ r___

inf___ lant___ mécc___ ásph___

여기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마지막 음군을 첨가시키면 (37)과 같은 제 1강세가 결정된다.



IV. 확대 강세규칙과 활용

지금까지 제 1강세가 단어의 어디에 배당되는지를 결정하는 주장세 규칙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이번에는 그 주장세규칙을 어떻게 확대 변형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단어의 파생구조에서 나타나는 접미어, 접두어와 어간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접미어 강세규칙과 접두어 강세규칙²⁹⁾, 주장세 규칙의 적용으로 실제 발음과 일치하는 제 1강세형의 위치를 유도할 수 없을 경우에 적용되는 교체강세규칙과 단어와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어에 적용되는 복합어 강세규칙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구에 적용되는 핵강세규칙 순으로 제 1강세의 위치가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접미어 강세규칙³⁰⁾

앞서 필자는 단어의 파생구조를 언급하면서 접미어에는 중립접미어 (neutral suffix), 특수접미어 (specific suffix), 보통접미어 (regular suffix)로 구분된다³¹⁾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기서는 각 접미

29) SPE에서는 이 규칙을 주장세규칙의 범위내에서 다루고 있으나, 필자는 교육 현장에서 보다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 별도로 규칙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30) *Ibid.*, pp.126-145.

31) Laurie Bauer et al. (1980:172)에서는 접미어를 약접미어 (weak suffix), 강접미어 (strong suffix), 보통접미어 (regular suffix)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논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어의 특성에 따라 제 1강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중립접미어인 경우³²⁾

중립접미어는 파생 접미어적인 것과 굴절 접미어적인 것이 있으며 중립접미어를 갖는 단어는 모두 「자립어간+중립접미어」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39)는 파생어미인 중립접미어로 끝나는 단어이고, (40)은 굴절어미인 중립접미어로 끝나는 단어들인데 이들 단어에서 중립접미어와 제 1강세의 위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보기로 하자.

(39) 파생 중립 접미어

mádn ¹ ess	bróth ¹ erhood	chíld ¹ like	adví ¹ ser
condú ¹ ctor	jóurn ¹ alist	égoí ¹ sm	rápí ¹ dly
glóom ¹ y	párdon ¹ able	chíldí ¹ sh	árgum ¹ ent

(40) 굴절 중립 접미어

prét ¹ tier	quíet ¹ est	devé ¹ loped	prepá ¹ ring
exchán ¹ ges	decíd ¹ ed	expres ¹ ses	díamonds

(39), (40)의 단어들을 자세히 보면 모든 단어들이 어미가 첨가되어 단어형이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어미를 뺀 자립어간이 독립된 단어로 쓰일 때의 제 1강세 위치가 이들 단어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32) N. Chomsky(1968), *op. cit.*, pp.85-86.

수 있다. 즉

- | | | |
|------|--|---|
| (41) | má ¹ d - má ¹ dness | bró ¹ ther - bró ¹ therhood |
| | adví ¹ se - adví ¹ ser | chí ¹ ld - chí ¹ ldlike |
| | é ¹ go - é ¹ goism | jó ¹ urnal - jó ¹ urnalist |
| (42) | prét ¹ ty - prét ¹ tier | quí ¹ et - quí ¹ etest |
| | devè ¹ lop - devè ¹ loped | prepà ¹ re - prepà ¹ reing |
| | exchà ¹ ngé - exchà ¹ ngés | dí ¹ amond - dí ¹ amonds |

따라서 중립접미어는 제 1강세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 규칙화한다면 (43)과 같다.

(43) Rule 3 (접미어 강세규칙 I)

중립접미어가 붙어 있는 단어의 제 1강세는 중립접미어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자립어간이 독립된 단어로 쓰일 때의 강세 형으로 구하면 된다.

2) 특수 접미어인 경우³³⁾

특수 접미어 즉, -ade, -ee, -eer, -ese, -esque, -ette 등으로 끝나는 단어의 제 1강세 위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 | | | | | |
|------|---------------------------|---------------------------|-------------------------|--------------------------|
| (44) | lemoná ¹ de | patrioté ¹ er | cigaré ¹ tte | escapá ¹ de |
| | enginé ¹ er | millioná ¹ ire | employé ¹ e | Chiné ¹ se |
| | picturés ¹ que | payé ¹ e | Japané ¹ se | Romanés ¹ que |

33) *Ibid.*, pp.157-158.

(44)의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특수접미어가 붙은 단어의 제 1강세는 모두 그 접미어의 모음에 와 있다. 그러므로 특수 접미어의 제 1강세 위치를 구하려면 그 접미어에만 주장세규칙을 적용시키면 된다.

(45) Rule 4 (접미어 강세규칙 II)

특수접미어가 붙어 있는 단어에 주장세규칙을 적용시킬 때 어간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접미어만 고려하여 그 유일한 접미어의 모음에 제 1강세를 할당한다.

특수접미어는 [PS#[PS# 자립어간 #PS]=특수접미어 #PS](단, PS=Part of Speech)의 파생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강세형을 유도하려면 먼저 내부 괄호인 어간에 적용 가능한 강세규칙을 적용시키고 괄호를 지우고 그 다음 특수 접미어에 주장세규칙을 적용시키고 나서 전체 단어에 강세조정규칙을 적용시킨 다음 외부의 괄호를 지우면 올바른 강세형이 유도된다.

(44)에 예로 든 단어 중 employee와 appointee가 어떻게 강세규칙을 적용받아 제 1강세형이 유도되는지를 보자. 이들 단어의 파생구조는 다음과 같다.

(46) [N#[v#em=ploy#v]=ee#N] [N#[v#ap=point#v]=ee#N]

먼저 가장 내부에 있는 괄호에 강세규칙을 적용하고 괄호를 지우면 다음과 같이 된다

(47) [N# em = pl¹oy = ee #N] [N# ap = po¹int = ee #N]

이러 특수접미어에 주강세규칙을 적용시키면 처음에 부여된 제 1 강세는 자동적으로 한 단계씩 내려가서 다음과 같이 제 2강세가 된다.

(48) [N# em = pl²oy = ¹ee #N] [N# ap = p²oint = ¹ee #N]

마지막으로 강세조정규칙을 적용시키고 괄호를 지우면 employ³ée와 appoint³ée가 되어 실제 발음과 동일한 강세형이 유도된다.

3) 보통 접미어인 경우³⁴⁾

아래의 단어들은 이완모음을 포함하는 단음절 보통접미어(-al, -ent -ant, -ous)를 가지고 있다. 이 단어들의 제 1강세의 위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과정을 지적해 보자.

(가)	(나)	(다)
pr ¹ incipal	arr ¹ ival	et ¹ ernal
indiv ¹ idual	ref ¹ usal	mon ¹ umental
dil ¹ igent	inh ¹ erent	dep ¹ endent
inn ¹ ocent	opp ¹ onent	pers ¹ istent
dom ¹ inant	compl ¹ iant	obs ¹ ervant
sign ¹ ificant	ob ¹ eisant	red ¹ undant
spont ¹ aneous	des ¹ irous	en ¹ ormous
unan ¹ imous	son ¹ orous	trem ¹ endous

34) *Ibid.*, pp.126-145.

(49)의 단어들 중에서 (가)에 열거된 것들은 모두 마지막에서 셋째 음군(접미어를 제외하고 남는 어간의 마지막에서 둘째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와 있고, (나)와 (다)에 열거된 것들은 모두 마지막에서 둘째 음군(어간의 마지막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접미어를 제외하고 어간만 보면 (가)의 단어들은 약음군으로 끝났으므로 제 1강세가 어간의 마지막에서 둘째 음군에 와 있고, (나), (다)의 단어들은 강음군으로 끝났으며 마지막 음군에 제 1강세가 주어짐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강세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마치 이완모음을 포함하는 음군으로 끝나는 명사에 주강세 규칙을 적용시킬 때와 비슷하게 그 접미어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는 어간에 주강세 규칙을 적용하면 정확히 유도될 수 있다. 위의 고찰을 기반으로 (50)과 같은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50) Rule 5 (접미어 강세규칙 III)

이완모음을 포함하는 단음절 보통접미어로 끝나는 단어는 그 접미어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는 어간에 주강세 규칙을 적용하여 제 1강세 위치를 결정한다.

그러면 강세규칙 (50)을 적용하여 (49)의 (가), (나), (다)의 단어들의 제 1강세의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 보자.

먼저 접미어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어간만이 남게 되는데 거기에 주강세 규칙을 적용시키면 (49)의 (가)는 마지막 음군이 약음군으로 끝나므로 마지막에서 둘째 음군의 모음에, (49)의 (나), (다)는 마지막 음군이 강음군으로 끝나므로 마지막 음군의 모음에 각각 제 1강세를 배당한다.

(51)	(가)'	(나)'	(다)'
	princ <u>ip</u> ___	arr <u>iv</u> ___	et <u>er</u> N___
	indiv <u>id</u> u___	ref <u>u</u> S___	monum <u>en</u> T___
	d <u>il</u> ig___	inh <u>er</u> ___	dep <u>en</u> D___
	innoc___	opp <u>o</u> N___	pers <u>is</u> T___
	d <u>o</u> min___	comp <u>l</u> I___	obs <u>er</u> V___
	sign <u>if</u> ic___	ob <u>e</u> YS___	red <u>un</u> D___
	spont <u>an</u> e___	des <u>ir</u> ___	en <u>o</u> RM___
	un <u>an</u> im___	son <u>o</u> R___	trem <u>en</u> D___

여기에다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접미어를 첨가하면 (49)의 (가) (나), (다)와 일치하는 강세형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ent와 -ant로 끝나는 형용사(E.g. pertinent, relevant etc.)는 흔히 그 명사형에서 -ent와 -ant 대신에 -ence와 -ance가 쓰이지만 때로는 2음절 보통접미어-ency와 -ancy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E.g. pertinence / pertinency, relevance / relevancy etc.) 이와 같이 명사가 -ency와 -ancy로 끝나면 -ency와 -ancy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는 어간에 주장세규칙을 적용하여 제 1강세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다음의 예가 그 타당성을 제공해 준다.

(52)	infl <u>u</u> ence	rev <u>e</u> rence	él <u>e</u> gance	imp <u>o</u> rtance
	ré <u>l</u> evancy	ém <u>e</u> rgency	ú <u>r</u> gency	imp <u>o</u> rtancy

(52)의 단어에서 -ence, -ance와 -ency, -ancy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장세규칙을 적용하면 실제 발음과 동일한 제 1강세형이 유도된다. 이를 규칙화하면 (53)과 같다.

(53) Rule 5 a) : 2음절 보통접미어 -ency, -ancy가 오는 단어의 경우는 접미어 -ent, -ant와 같은 방법으로 Rule 5를 적용한다.

다음은 철자로 보아 -at(e)로 끝나는 동사 다음에 접미어가 오는 경우를 살펴 보자.

(54)	(라)	(마)	(바)
	g ¹ enerative	alt ¹ ernative	acc ¹ uracy
	d ¹ ecorative	ill ¹ ustrative	c ¹ andidacy
	c ¹ umulative	dem ¹ onstrative	ant ¹ icipatory
	im ¹ aginative	cont ¹ emplative	cong ¹ ratulatory



(54)의 단어들은 Rule 5에 의해 접미어(-ive, -y, -ory)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장세규칙을 적용시키면 실제 발음과 다른 강세형이 나온다. 그러나 -at(e)+ive(-y, -ory)를 접미어로 생각하여 이를 고려에서 제외하고 주장세규칙을 적용시키면 실제 발음과 동일한 강세형이 유도됨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을 살펴 보면 (5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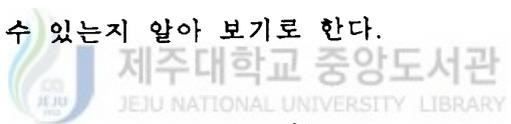
(55)	(라)'	(마)'	(바)'
	g ¹ ener___	alt ¹ ern___	acc ¹ ur___
	d ¹ ecor___	ill ¹ ustr___	c ¹ andid___

cūmul___ demōnstr___ antīcip___
 imāgin___ contēpl___ congrātul___

(55)는 접미어로 간주한 -at(e)+ive(-y, -ory)를 제외하고 주강세 규칙을 적용한 형태이다. 여기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을 첨가하면 실제 발음과 같은 제 1강세형이 유도된다. 이를 규칙화하면 (56)과 같다.

(56) Rule 5 b) : 단어의 끝부분이 -at(e)로 끝나고 접미어가 오는 경우는 -at(e)도 접미어로 간주하여 Rule 5를 적용한다.

다음에는 2음절로 된 강모음을 포함하지 않는 보통접미어로 끝나는 단어의 제 1강세 위치에 대해 생각하여 보자. (57)은 보통접미어 -ity, -ion, -ical로 끝나는 단어들인데 그 제 1강세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 보기로 한다.



(57)	(사)	(아)	(자)
	capácity	promótion	polítical
	idēntity	foundátion	chémical
	equáality	intēntion	idēntical
	rapídity	decísion	geológical
	abíility	inclúision	mathemátical

(57)의 단어들은 모두 마지막에서 셋째 음군(어간의 마지막 음군)

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주어지고 있다. 그 제 1강세를 받은 음군은 강음군인 것도 있고 약음군인 것도 있다. 그러므로 접미어 강세규칙으로는 이들의 제 1강세의 위치를 설명할 수 없다. 즉 접미어를 무시하고 어간에 주강세규칙을 적용시키면 어떤 경우는 제 1강세가 제대로 구해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러면 (57)의 단어들의 제 1강세의 위치는 접미어 강세규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것인가? 그러나 문제의 2음절 접미어를 i+ty, i+on, ic+al로 분석하고 첫 부분을 어간에 속하는 것으로 하고 남은 뒷 부분을 접미어로 보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단음절 접미어로 간주하는 -ty, -on, -al이 모두 이완모음을 포함하므로 접미어 강세규칙에서의 접미어들과 같은 성질의 접미어로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57)의 단어들에서 -ty, -on, -al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즉 어간으로 취급되는 부분)은 언제나 약음군(즉, -i, -ic)으로 끝나므로 주강세규칙을 적용시키면 된다. 그 어간으로 취급되는 부분의 마지막에서 둘째(전체 단어의 마지막에서 셋째)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주어지는 것이다.

(57)의 단어의 제 1강세 유도 과정을 좀더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음절 접미어로 간주되는 부분(-ty, -on, al)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주강세규칙을 적용한다. (57)의 모든 단어들은 약음군(i, ic)로 끝나므로 주강세규칙을 적용시키면 마지막에서 둘째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주어지게 된다.

(58)	(사)'	(아)'	(자)'
	capáci___	promóti___	polític___
	idénti___	foundáti___	chémic___

를 규칙화하면 (60)과 같다.

(60) Rule 5 c) : 2음절 보통접미어 -ity, -ion, -ical로 끝나는 단어는 -ty, -on, -al만을 접미어로 간주하여 Rule 5를 적용한다. 단, -ic는 -ical과 동일형으로 취급한다.

다음은 철자상 -ar-, -or- 다음에 보통접미어 -y가 오는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한다.

(61)	(차)	(카)
	c ¹ ategory	o ¹ rdinary
	a ¹ uditory	c ¹ ustomary
	a ¹ llegory	m ¹ ilitary
	comp ¹ ulsory	elem ¹ entary
	adv ¹ isory	ann ¹ iversary
	cons ¹ istory	docum ¹ entary

(61)의 단어에 Rule 5에 의해 보통접미어 -y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강세규칙을 적용시키면 실제 발음과 동일한 강세형이 나오기도 하지만 다른 강세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ory, -ary를 접미어로 간주하고 Rule 5를 적용시키면 실제 발음과 동일한 강세형이 유도됨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62)	(차)'	(카)'
	càteg___	òrdin___
	àudit___	cùstom___
	àlleg___	milit___
	compùls___	elemènt___
	advìs___	annivèrs___
	consìst___	document___

(62)는 접미어로 간주한 -ory, -ary를 제외하고 주강세규칙을 적용한 형태이다. 여기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부분을 첨가하면 실제 발음과 같은 강세형이 유도된다. 이를 규칙화하면 (63)과 같다.

(63) Rule 5 d) : 단어가 -ory, -ary로 끝나는 경우는 이를 보통접미어로 간주하여 Rule 5를 적용한다.

지금까지 이완모음을 포함하는 보통접미어가 단어의 제 1강세 위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이중모음이나 장모음을 포함하는 보통접미어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언급할 교체강세규칙을 다룰 때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이제까지는 제 1강세의 위치에 대해서만 설명했는데 실상은 지금까지의 단어 중 그 파생과정에서 제 1강세의 위치가 옮겨짐으로써 원래 있던 제 1강세가 제 2강세 이하의 강세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monumental의 강세형을 자세히 표시하면 m³onument¹인데 이 단어의 첫 음군에 오는 제 3강세는 그 어간 monument가 독자적인 단어로 쓰일 때 첫 음군의 모음에 있던 제 1강세(즉, mon¹ument)가 -al 앞에서 두 음절 뒤로 옮겨지면서 약화되어 남은 흔적을 보인다. 이는 변형 생성문법의 강세 분석에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는 그 파생구조를 표시할 때 괄호([])가 두겹 혹은 그 이상으로 쓰이므로 먼저 가장 안에 있는 괄호로 싸인 부분에 주장세규칙 등 가능한 강세규칙을 적용시키고 괄호를 지운다. 이렇게 하여 마지막 괄호까지 지운다. 단 이러한 과정에서 제 1강세가 옮겨 주어질 때마다 원래 있던 강세는 한 계단씩 내린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괄호를 지우기 직전에 제 1강세 이하의 강세가 있으면 이를 한 계단씩 내린다. 이를 강세조정규칙(Stress Adjustment Rule)이라 부른다.³⁵⁾

이러한 방법으로 monumental(=[monument]al)의 강세형을 유도해 보자. 먼저 내부 괄호로 싸인 [monument]에 명사 강세규칙을 적용하면 [mon¹ument](Rule 2 적용)가 되는데 적용될 규칙이 모두 적용되었으므로 그 괄호를 지우면 [mon¹ument+al]가 된다. 다음에는 [mon¹ument+al]에 접미어 강세규칙을 적용하면 [mon¹ument+al](Rule 5 적용)이 되고 제 1강세가 -ent로 옮겨 주어졌으므로 첫째 음군의 모음에 원래 주어진 제 1강세는 제 2강세로 내린다(즉, [mon²ument+al]). 그 다음 강세조정규칙을 적용하여 제 2강세를 한 계단 내려 제 3강세로 만든다(즉, [mon³ument+al]). 그리고 나서 괄호를 지우면 m³onument¹al이 유도된다.

35) *Ibid.*, p.34.

이를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2중 접미어로 끝난 단어 p^3popul^1arity 의 강세형을 유도해 보자. $popularity(=[popul+ar]i+ty)$ 는 첫 단계에서 $[p^1popul+ar]$ 에 접미어 강세규칙을 적용시키고 괄호를 지우면 $[p^1popul+ar+i+ty]$ 가 남는다. 여기에 다시 접미어 강세규칙을 적용시키면 $[p^1popul+ar+i+ty]$ 가 된다. 이때 제 1강세가 옮겨짐에 따라 처음 주어진 제 1강세는 한 단계 내려 제 2강세가 된다 (즉, $[p^2popul+ar+i+ty]$). 여기에 마지막으로 강세조정규칙을 적용시켜 괄호를 지우면 실제 발음과 같은 p^3popul^1arity 가 나온다.

2. 접두어 강세 규칙³⁶⁾

접두어가 붙어 있는 단어들은 어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제 1강세형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접미어의 경우보다 복잡하고 어렵다. 여기서의 의존어간, 자립어간, 품사전환어로 구분하여 제 1강세형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규칙화시켜 보고자 한다.

1) 의존어간의 경우³⁷⁾

접두어가 의존어간에 붙어 있는 경우는 대개 형용사나 동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64)의 단어들을 통해서 제 1강세 위치가 유도되는 과정을 알아 보자.

36) *Ibid.*, pp.94-110.

37) N. Chomsky(1968), *op.cit.*, pp.94-96.

(64)	(가)	(나)
	con ¹ fēr imp ¹ ēl	un ¹ fīt un ¹ sāfe
	trans ¹ fēr exp ¹ ēl	un ¹ sāid under ¹ fōod
	per ¹ mīt concū ¹ r	pre ¹ fēd under ¹ līt

(64)의 단어들은 접두어에 단음절 의존어간을 가진 것들로 (가)는 동사이고 (나)는 형용사이다.³⁸⁾ 이들의 파생구조를 통하여 제 1강세가 유도되는 과정을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65)	(가)'	(나)'
	con=fēr im=pēl	un=fīt un=sāfe
	trans=fēr ex=pēl	un=sāid under=fōod
	per=mit con=cūr	pre=fēd under=līt

즉, 이 단어들은 모두 단음절인 의존어간의 유일한 모습에 제 1강세가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접두어를 제외하고 남는 부분에만 주장세규칙을 적용하여 제 1강세형을 유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규칙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66) Rule 6 (접두어 강세규칙 I)

단어의 파생구조 상 「접두어+의존어간」인 단어의 제1강세는 접두

38) 박 남식(1970:78)은 단어의 파생구조상 「접두어+(동사의) 과거분사」 혹은 「접두어+형용사」로 이루어진 단어는 상당수 있는데, 이 경우 접두어 다음에 오는 부분을 의존어간으로 보고 있다.

어를 무시하고 의존어간에 주장세규칙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2) 자립어간의 경우³⁹⁾

대개 혼성명사나 형용사인 경우 거의 예외없이 「접두어+자립어간」의 파생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단어들의 자립어간이 단음절인 경우의 강세형을 과정을 살펴 보자.

(67)	(가)	(나)	(다)
	ástronáut	mónopláne	áudiográm
	áutobús	mónoplóid	bíbliophíle
	biográph	mónotóne	cárdiográm
	céntigráde	múltipháse	ídioléct
	hýdrogén	párallel	stéreatýpe
	ínterphóne	péntastýle	hélicográph
	mónográph	pólypháse	stéreatoscópe
	páradóx	pólystýle	eléctroscópe
	téléphóne	pólyfóil	hétérochróme
	phótográph	múltifórm	hétérodyne

(67)의 단어들 중 (가), (나)에서 astro-, auto-, bio-, centi-, hydro-, inter-, mono-, para-, tele-, photo-, multi-, penta-,

39) N. Chomsky(1968), *op.cit.*, pp.100-110.

poly- 등은 접두어이고, 나머지는 단음절로 된 자립어간이며, (가)는 동사들이고, (나)는 형용사들이다.

(67)의 (가), (나) 단어들의 강세형에서 주목할 것은 모두 단음절어간의 모음에 제 3강세가 오고 2음절 접두어의 첫째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온 것이다. 이를 자세히 보면 접두어가 모두 약음군으로 끝나 있다. 그러므로 접두어의 첫째 음군에 오는 제 1강세는 접두어만을 고려 대상으로 하고 주장세규칙을 적용시키면 구할 수 있다. 즉 (67)의 (가), (나)의 단어들은 그 파생구조를 [접두어[자립어간]]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먼저 단음절 자립어간에 적절한 강세규칙을 적용시키고 그 괄호를 지운 다음 접두어에 주장세규칙을 다시 적용한 후 강세조정규칙을 운용하여 외부의 괄호를 지우면 실제 발음과 같은 강세형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67)의 (가), (나)의 단어들의 강세형을 유도해 보자.

(68)	(가)'	(나)'
	[astro[naut]]	[mono[plane]]
	[auto[bus]]	[mono[ploid]]
	[bio[[graph]]	[mono[tone]]
	[centi[grade]]	[multi[phase]]
	[hydro[gen]]	[para[lllel]]

(68)의 단어에서 내부 괄호에 있는 자립어간에 주장세규칙을 적용시키고 그 괄호를 지우면 (69)와 같이 된다.

(69)	(가)''	(나)''
	[astro+naut]	[mono+plane]

[auto+b ¹ ús]	[mono+pl ¹ óid]
[bio+gr ¹ áph]	[mono+t ¹ óne]
[centi+gr ¹ áde]	[multi+ph ¹ áse]
[hydro+g ¹ én]	[para+ll ¹ é1]

여기에 접두어에 주강세규칙을 적용시키면 접두어가 모두 약음군으로 끝나므로 접두어의 마지막에서 둘째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옮겨지고 원래 있던 어간의 제 1강세는 제 2강세로 변한다. 즉,

(70)	(가)'''	(나)'''
	[ástro+n ² áut]	[m ¹ ono+pl ² áne]
	[áuto+b ² ús]	[m ¹ ono+pl ² óid]
	[b ¹ io+gr ² áph]	[m ¹ ono+t ² óne]
	[c ¹ enti+gr ² áde]	[m ¹ ulti+ph ² áse]
	[h ¹ ydro+g ² én]	[p ¹ ara+ll ² é1]

여기에다 마지막으로 강세조정규칙을 적용시키면서 괄호를 지우면 제 2강세는 한 단계 내려가서 제 3강세로 되면서 실제 발음과 일치하는 강세형이 유도된다.

다음에는 (67)의 (다)에 열거된 단어들의 강세형을 도출해 보자. (67)의 (다) 단어에서 audio-, biblio-, cardio-, idio-, stereo-, helico-, electro-, mimeo-, hetero- 등은 접두어이고 나머지는 단음절로 끝나는 자립어간이다. 즉, 이들의 파생구조는 (71)과 같다.

(71)	[audio[gram]]	[biblio[phile]]
	[cardop[gram]]	[idio[lect]]
	[stereo[type]]	[helico[graph]]
	[sidero[scope]]	[electro[scope]]
	[mimeo[graph]]	[hetero[nym]]

이들의 강세형을 (67)의 (가), (나)와 같이 유도해 보면 실제 발음과

다른 강세형(E.g. audiogram, bibliophile etc.)이 나온다. 즉 제 1강세가 실제 발음에서 보다 한 음절 뒤의 모음에 오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잘못된 강세형 유도를 방지하려면 (67)의 (가), (나)의 방법과 꼭 같은 방법을 사용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서 제 1강세가 실제 발음과 같은 위치에 오게 하면 된다. 즉 [접두어[자립어간]]에서 접두어에 주장세규칙을 적용시킬 때 접두어가 철자 'o'로 끝나면 그 'o'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에는 자립어간이 2음절 이상으로 된 단어들의 강세형을 생각해 보자.

(72)	bio ¹ genesis	photo ¹ synthesis	mono ¹ acid
	electro ¹ analysis	poly ¹ clinic	multi ¹ purpose
	hydro ¹ carbon	radio ¹ photo	sub ¹ acute
	meta ¹ physics	thermo ¹ element	super ¹ human

(72)의 단어들에서 bio-, electro-, hydro-, meta-, photo-, poly-, radio-, thermo-, mono-, multi-, sub-, super- 는 접두어이

고 나머지 부분은 자립어간이다. (67)의 (가), (나), (다)의 어간들과 (72)의 어간들을 비교하면 전자의 경우는 단음절이고 독립된 단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이 비교적 드문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는 모두 2음절 이상이고 독립된 단어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구조상의 차이는 강세형에도 반영되어 제 1강세가 (67)의 (가), (나), (다)에서는 접두어에 오지만 (라)에서는 어간에 온다. 그런데 (72)의 단어에서는 그 어간이 독립된 단어로 쓰일 때의 제 1강세의 위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72) 단어들의 제 1강세의 위치를 찾으려면 그 어간들이 독립된 단어로 쓰일 때의 제 1강세형만 구하면 된다. 따라서 그 어간들에 적용 가능한 강세규칙을 적용하면 그 단어들의 제 1강세가 나온다.

지금까지 [접두어[자립어간]]의 파생구조를 갖는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종합하여 규칙화하면 (73)과 같다.

(73) Rule 7 (접두어 강세규칙 II)

[접두어[자립어간]]의 파생구조를 갖는 단어의 강세형은 먼저 자립어간에 적절한 강세규칙을 적용시키고, 다음에 [1]어간이 단음절이면 접두어에 주강세규칙을 적용시키고, [2]어간이 2음절 이상이면 어간에 적절한 강세규칙을 적용시킨 후 마지막으로 강세조정규칙을 적용시켜 구한다. 단, 접두어에 주강세규칙을 적용시킬 때 그 접두어가 'ㅇ'로 끝나면 이 'ㅇ'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3) 품사전환어인 경우⁴⁰⁾

품사 전환어는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품사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40) *Ibid.*, pp.96-98.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 단어가 품사 전환어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품사 전환어의 경우 강세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동사를 기본 품사로 보고 명사를 전환 품사로 볼 때에 동사의 경우는 주장세규칙을 적용시켜 제 1강세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으나 명사의 경우는 주장세규칙을 적용시켜 제 1강세의 위치를 결정할 수 없다.

(74)	동 사	명 사	동 사	명 사
	product	product	convert	convert
	present	present	insert	insert
	conflict	conflict	record	record
	contrast	contrast	prospect	prospect

(74)의 단어들은 모두 「접두어+의존어간」으로 되어 있다. 즉, pro-, pre-, con-, in-, re- 등은 접두어이고, 나머지는 단음절 의존어간이다. 그러므로 이 단어들은 동사로 쓰일 때에는 Rule 6를 적용하여 어간의 유일한 모음에 제 1강세를 배당한다. 그러나 이들이 명사로 쓰일 때는 어간의 모음에 제 3강세가 주어지고, 첫째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오고있다. 여기서 동사를 기본 품사로 보고 명사를 거기서 파생한 전환 품사로 보면 기본 품사인 동사에서 명사로 전환하면서 원래 동사일 때 어간의 모음에 있었던 제 1강세가 접두어로 옮겨가고 그 자리에는 원래 있었던 제 1강세의 흔적으로 제 3강세가 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4)의 단어들은 동사일 때와 명사일 때 각각 [접두어=의존어간]과 [[접두어=의존어간]]의 파생구조를 갖는다. 전자의 경우는 한 겹의 괄호만 쓰이므로 강세규칙을 한 번만 적용하면 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두겹의 괄호가 쓰이므로 강세규칙을 두 번 적용하여야 한다. 명사로 쓰일 때의 강세형은 (75)와 같이 구할 수 있다.

(75) Rule 8 (접두어 강세규칙 III)

품사전환어인 경우 강세형은[[접두어=의존어간]]의 내부 괄호에 접두어 강세규칙 I을 적용시키고 그 괄호를 지운 다음, [접두어=의존어간]의 접두어에만 다시 주강세규칙을 적용시킨 후 강세조정규칙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Rule 8을 적용하여 위의 단어들의 강세형을 유도하기 위해 그들의 파생구조를 보면 (76)과 같다.

- (76) [N#[v# pro=duct #v]#N] [N#[v# pre=sent #v]#N]
 [N#[v# con=flict #v]#N] [N#[v# con=trast #v]#N]
 [N#[v# con=vert #v]#N] [N#[v# in=sert #v]#N]
 [N#[v# re=cord #v]#N] [N#[v# pro=spect #v]#N]



이들 파생구조에서 먼저 가장 내부에 있는 괄호에 접두어 강세규칙을 적용시키고 괄호를 지우면 (77)과 같이 된다.

- (77) [N# pro=d¹uct #N] [N# pre=s¹ent #N]
 [N# con=f¹lict #N] [N# con=tr¹ast #N]
 [N# con=v¹ert #N] [N# in=s¹ert #N]
 [N# re=c¹ord #N] [N# pro=s¹pect #N]

다음에는 접두어에 주장세규칙을 적용시키면 접두어의 유일한 모음에 제 1강세가 주어지고 처음 어간에 있던 제 1강세는 (78)과 같이 제 2강세로 내려가게 된다.

(78)	[N# pr ¹ o=d ² uct #N]	[N# pr ¹ e=s ² ent #N]
	[N# c ¹ on=fl ² ict #N]	[N# c ¹ on=tr ² ast #N]
	[N# c ¹ on=v ² ert #N]	[N# in=s ² ert #N]
	[N# r ¹ e=c ² ord #N]	[N# pr ¹ o=sp ² ect #N]

(78)에 마지막으로 강세조정규칙을 적용시키고 괄호를 지우면 제 2강세는 한 단계 내려가 제 3강세로 되어 실제 발음과 같은 명사의 강세형이 결정된다.

3. 교체강세규칙⁴¹⁾

교체강세규칙(Alternating Stress Rule)은 주장세규칙, 접미어 강세규칙, 접두어 강세규칙이 적용된 후에 적용되는 규칙인데, 적절한 강세규칙을 적용하여도 실제 발음과 일치하는 제 1강세형의 위치를 유도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적절한 강세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제 1강세를 앞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교체강세규칙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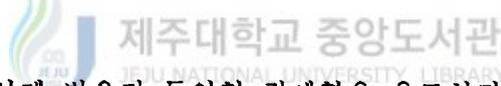
41) *Ibid.*, pp.77-79.

M. Halle & S. J. Keyser(1971), *op.cit.*, pp.26-27.

(79)	(가)	(나)	(다)
	démonstr ¹ ate ³	anécd ¹ ote ³	marit ¹ ime ³
	évalu ¹ ate ³	candid ¹ ate ³	Argent ¹ ine ³
	identif ¹ y ³	hurric ¹ ane ³	récond ¹ ite ³
	satisf ¹ y ³	ridicul ¹ e ³	érud ¹ ite ³
	anal ¹ ize ³	matad ¹ or ³	láchrym ¹ ose ³
	récogn ¹ ize ³	commod ¹ ore ³	béllic ¹ ose ³
	constit ¹ ute ³	casser ¹ ole ³	infant ¹ ile ³
	éxecu ¹ te ³	ori ¹ ole ³	ántrop ¹ oid ³
	instit ¹ ute ³	ántel ¹ ope ³	absol ¹ ute ³
	réconc ¹ ile ³	Lorel ¹ ei ³	déstit ¹ ute ³

(79)의 단어 중에 (가)동사의 경우 -ate, -ify, -ize 등은 모두 마지막 음군이 긴장모음을 포함하는 보통접미어이고, -stitute, -(s)ecute, -concile 등은 강음군으로 끝나는 의존어간이다. 또한 (나)명사와 (다)형용사인 경우 -ole, -role, -or(e), -cule, -time, -ite, -ose, -ile, -oid 등은 모두 긴장모음을 포함하는 접미어들이고, -stitute, -solute 등은 강음군으로 끝나는 의존어간이며, 이들 어간이나 접미어로 끝나지 않는 기타 단어는 기본 단어이다. 이처럼 (79)의 단어들은 파생구조로 표시할 때 괄호가 한 겹만 쓰이므로 강세규칙이 한 번만 적용된다. 그런데 (79)의 단어에 주강세규칙을 적용시키면 (80)과 같이 실제 발음과는 틀린 강세형이 유도된다.

(80)	(가)'	(나)'	(다)'
	demonstrá ¹ te	anecdó ¹ te	marítim ¹ e
	evaluá ¹ te	candidá ¹ te	Argentín ¹ e
	identifý ¹	hurricán ¹ e	recondít ¹ e
	satisfý ¹	ridicú ¹ le	erudít ¹ e
	analí ¹ ze	matador ¹	lachrymó ¹ se
	recogní ¹ ze	commodó ¹ re	bellicó ¹ se
	constitú ¹ te	casseró ¹ le	infantí ¹ le
	institú ¹ te	orió ¹ le	antropó ¹ id
	execú ¹ te	anteló ¹ pe	absolú ¹ te
	reconcí ¹ le	Loreléi	destitú ¹ te



그러므로 실제 발음과 동일한 강세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 강세규칙을 적용시킨 후 마지막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오면 마지막에서 셋째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를 다시 배정하면 된다. 이를 교체강세규칙이라 한다.

이 규칙에 따라 (80)의 (가)', (나)', (다)'에서 제 1강세를 마지막에서 셋째 음군에 다시 배정하면 강세 규약에 의해 마지막 음군의 모음에 주어진 제 1강세는 한 단계 아래인 제 2강세로 변한다. 즉,

(81)	(가)''	(나)''	(다)''
	démonstrá ² te	ánecdó ² te	máritim ² e

évalu ¹ âte ²	candid ¹ âte ²	Argent ¹ ime ²
identif ¹ y ²	hurric ¹ âne ²	récond ¹ ite ²
satisf ¹ y ²	ridic ¹ ule ²	érud ¹ ite ²
anal ¹ ize ²	matad ¹ ôr ²	lâchrym ¹ ose ²
recong ¹ ize ²	commod ¹ ore ²	bêllic ¹ ose ²
constit ¹ ute ²	casser ¹ ole ²	infant ¹ ile ²
instit ¹ ute ²	ori ¹ ole ²	ântrop ¹ oid ²
exec ¹ ute ²	ântel ¹ ope ²	âbsol ¹ ute ²
reconc ¹ ile ²	Lorel ¹ ei ²	dêstit ¹ ute ²

여기에다 어느 단어에나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강세조정규칙을 적용시키면 마지막 음군의 모음에 오는 제 2강세는 한 단계 내려가서 제 3강세가 되면서 실제 발음과 동일한 강세형이 유도된다.

그런데 (82)와 같이 「접두어+의존어간」의 파생구조를 갖는 단어 중 의존어간이 단음절인 경우와 특수접미어로 끝나는 단어에 교체강세규칙을 적용하면 실제 발음과 다른 강세형이 유도된다.

(82)	(라)	(마)	
interc ¹ ept	overt ¹ ake	persu ¹ ade	engin ¹ eer
introduc ¹ e	underm ¹ ine	lemon ¹ ade	Vietnam ¹ ese
compreh ¹ end	contrad ¹ ict	employ ¹ ee	kitchen ¹ ette
recomm ¹ end	supers ¹ ede	appoint ¹ ee	pictur ¹ esque

(82)의 (라) 단어들은 모두 단음절 의존어간으로 끝나므로 Rule 6에 의해 그 어간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주어지고, (82)의 (마)는 특수 접미어로 끝나므로 Rule 4에 의해 그 접미어의 유일한 모음에 제 1강세가 주어진다. 즉,

(83)	(라)'	(마)'
	[v# inter=ce ¹ pt #v]	[v# persua ¹ de #v]
	[v# intro=du ¹ ce #v]	[N# lemon=a ¹ de #N]
	[v# com=pre=h ¹ end #v]	[N# em=ploy=e ¹ e #N]
	[v# re=com=m ¹ end #v]	[N# ap=point=e ¹ e #N]
	[v# over=ta ¹ ke #v]	[N# engin=e ¹ er #N]
	[v# under=m ¹ ine #v]	[A# Vietn ¹ am=ese #A]
	[v# contra=d ¹ ict #v]	[N# kitchen=e ¹ tte #N]
	[v# super=s ¹ e ¹ de #v]	[A# pictur=es ¹ que #A]

(83)과 같이 마지막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주어졌으므로 교체 강세규칙을 적용해야 되나 교체강세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마지막에서 셋째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주어지고 원래 마지막 음군의 모음에 있던 제 1강세는 한단계 내려가서 제 2강세가 되므로 실제 발음과는 다른 강세형이 유도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80)의 (가), (나) (다)의 단어들의 강세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84)와 같이 교체강세규칙을 수정하여 설정해야 한다.

(84) Rule 9 (교체강세규칙)

단음절 어간이나 특수접미어로 끝나지 않는 3음절 이상의 단어에 적절한 강세규칙을 적용하여 그 마지막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주어지면 그 제 1강세를 마지막에서 셋째 음군의 모음에 다시 배정한다.

4. 복합어 강세규칙⁴²⁾

복합어란 「단어+단어」의 형태를 갖는 단어를 말하며 이러한 복합어의 구조는 [α [β 단어 β][γ 단어 γ] α](단 α β γ 는 품사명을 나타내는데 이들 품사는 서로 같은 품사일 수도 있다)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갖는 복합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복합어의 강세형을 구할 수 있다.

우선 복합어의 구조는 「단어+단어」의 형태를 나타내므로 먼저 독립적으로 각 단어마다 적용 가능한 강세규칙을 적용시켜 제 1강세의 위치를 결정하게 되면 독립적으로 각 단어에 한 개씩의 제 1강세를 부여하면서 내부의 괄호를 지운다. 그 다음은 다시 앞에 오는 단어에 제 1강세를 부여하고 강세조정규칙을 적용하고 외부 괄호를 지우면 올바른 강세형을 유도할 수 있다.

(85)에 열거한 복합어의 강세형은 어떻게 유도되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85)	ch ¹ ur ³ ch ³ y ³ ard	l ¹ ady ³ d ³ o ³ ctor
	p ¹ o ³ cket ³ b ³ o ³ ok	h ¹ an ³ d ³ b ³ ag
	h ¹ an ³ d ³ w ³ ri ³ te	b ¹ ab ³ ys ³ it
	m ¹ an ³ h ³ an ³ d ³ le	bl ¹ oo ³ d ³ sh ³ o ³ t

42) N. Chomsky & M. Halle(1968), *op.cit.*, pp.91-94.

M. Halle & S. J. Keyser(1971), *op.cit.*, pp.22-23.

whitewash

homesick

먼저 이들 복합어의 파생구조를 나타내면 (86)과 같다.

- (86) [N#[N# church #N][N# yard #N]#N]
- [N#[N# pocket #N][N# book #N]#N]
- [V#[N# hand #N][V# write #V]#V]
- [V#[N# man #N][V# handle #V]#V]
- [V#[A# white #A][V# wash #V]#V]
- [N#[N# lady #N][N# doctor #N]#N]
- [N#[N# hand #N][N# back #N]#N]
- [V#[N# baby #N][V# sit #V]#V]
- [A#[N# blood #N][V# shot #V]#A]
- [A#[N# home #N][A# sick #A]#A]

(86)의 「단어+단어」의 형태로 된 복합어에 각각 독립적으로 강세규칙을 적용시키면 두 개의 단어에 각각 제 1강세를 하나씩 부여하고 내부의 괄호를 지우면 (87)과 같다.

- (87) [N## church ## yard ##N] [N## lady ## doctor ##N]
- [N## pocket ## book ##N] [N## hand ## back ##N]
- [V## hand ## write ##V] [V## baby ## sit ##V]
- [V## man ## handle ##V] [A## blood ## shot ##A]
- [V## white ## wash ##V] [A## home ## sick ##A]

(87)에 앞에 있는 단어의 위치에 다시 제 1강세가 주어지고 뒤에 있는 단어의 제 1강세는 한 단계 내려가서 (88)과 같이 제 2강세가 된다.

- (88) [N## ch¹urch ## y²ard ##N] [N## l¹ady ## d²octor ##N]
 [N## p¹ocket ## b²ook ##N] [N## h¹and ## b²ack ##N]
 [v## h¹and ## wr²ite ##v] [v## b¹aby ## s²it ##v]
 [v## m¹an ## h²andle ##v] [A## bl¹ood ## sh²ot ##A]
 [v## wh¹ite ## w²ash ##v] [A## h¹ome ## s²ick ##A]

마지막 단계로 강세조정규칙을 적용시키고 외부의 괄호를 지우면 뒤에 있는 단어에 부여된 제 2강세는 한 단계 내려가 제 3강세가 되어 실제 발음과 같은 강세형이 유도된다. 이를 종합하여 규칙화하면 (89)와 같다.

(89) Rule 10 (복합어 강세규칙)

복합어의 제 1강세는 그를 구성하는 각 단어에 적절한 강세규칙을 적용시킨 다음 앞에 나온 단어의 제 1강세 위치에 다시 제 1강세를 부여하여 결정한다.

5. 핵강세 규칙⁴³⁾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어구의 제 1강세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43) N. Chomsky & M. Halle(1968), *op.cit.*, pp.89-91.
 M. Halle & S. J. Keyser(1971), *op.cit.*, pp.23-24.

(90)의 예를 통해 알아 보기로 하자.

(90)	w ² ork h ¹ ard	h ² urry u ¹ p
	v ² ery g ¹ ood	qu ² ite n ¹ ew
	d ² ark r ¹ oom	wh ² ite h ¹ ouse
	g ² ood m ¹ an	bl ² ue sk ¹ y
	st ² udy l ¹ aw	g ² od's w ¹ ill

(90)에서 예로 든 어군의 파생구조는 (91)과 같이 [Ph#[ps# 단어 # ps]# Ph](Ph=phrase, ps=part of speech)로 나타낼 수 있다.

- (91) [VP#[V# work #V][AD# hard #AD]#VP]
 [AP#[AD# very #AD][A# good #A]#AP]
 [NP#[A# dark #A][N# room #N]#NP]
 [NP#[A# good #A][N# man #N]#NP]
 [VP#[V# study #V][N# law #N]#VP]
 [VP#[V# hurry #V][AD# up #AD]#VP]
 [AP#[AD# quite #AD][A# new #A]#AP]
 [NP#[A# white #A][N# house #N]#NP]
 [NP#[A# blue #A][N# sky #N]#NP]
 [NP#[D# God's #D][N# will #N]#NP]

(91)과 같은 파생구조를 갖는 어군에서 내부의 괄호 안에 있는 어구의 구성단어에 적용이 가능한 강세규칙을 모두 적용시킨 다음 품사

표시와 내부의 괄호를 지우면 (92)와 같이 된다.

(92) [vp## w¹ork ## h¹ard ##vp] [vp## h¹urry ## ¹up ##vp]
 [ap## v¹ery ## g¹ood ##ap] [ap## qu¹ite ## n¹ew ##ap]
 [np## d¹ark ## r¹oom ##np] [np## wh¹ite ## h¹ouse ##np]
 [np## g¹ood ## m¹an ##np] [np## bl¹ue ## sk¹y ##np]
 [vp## st¹udy ## l¹aw ##vp] [np## G¹od's ## w¹ill ##np]

(92)에다 오른쪽에 있는 단어에 다시 제 1강세를 부여하면 앞에 있는 단어는 자동적으로 한 단계 내려가 제 2강세를 받게 된다.

(93) [vp## w²ork ## h¹ard ##vp] [vp## h²urry ## ¹up ##vp]
 [ap## v²ery ## g¹ood ##ap] [ap## qu²ite ## n¹ew ##ap]
 [np## d²ark ## r¹oom ##np] [np## wh²ite ## h¹ouse ##np]
 [np## g²ood ## m¹an ##np] [np## bl²ue ## sk¹y ##np]
 [vp## st²udy ## l¹aw ##vp] [np## G²od's ## w¹ill ##np]

마지막으로 품사표시와 괄호를 지우면 실제 발음과 동일한 강세형이 유도된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구에는 강세조정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규칙화하면 (94)와 같다.

(94) Rule 11 (핵강세규칙)

두개 이상의 단어로 된 어구의 제 1강세는 그를 구성하는 단어

에 적절한 강세규칙을 적용시킨 다음 가장 오른쪽에 있는 단어에 다시 제 1강세를 부여하여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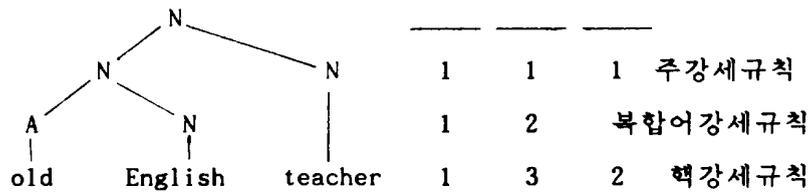
(94)와 같은 핵강세규칙을 Schane(1973)은 구강세규칙(Phrase Stress Rule)⁴⁴⁾이라고 하였는데 그 성격상 이들 두 강세규칙은 동일한 강세규칙이라 하겠다.

다음은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된 명사구에 복합어 강세규칙과 핵강세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파생구조와 강세규칙에 의해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 보자.

- (95) a) ¹old ²English ³teacher (고대 영어 교사)
 b) ¹old ²English ¹teacher (늙은 영국인 교사)
 c) ²old ¹English ³teacher (늙은 영어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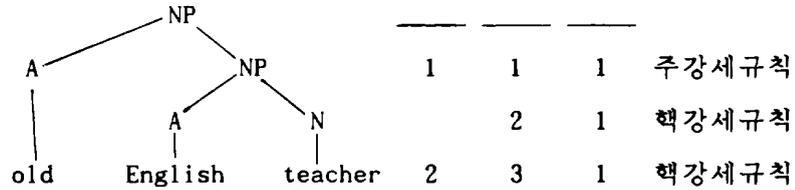
(95)의 파생구조 및 구구조(phrase structure)를 나타내면 (96)과 같다

(96) a) [N#[N#[A#old#A][N#English#N]#N][N#teacher#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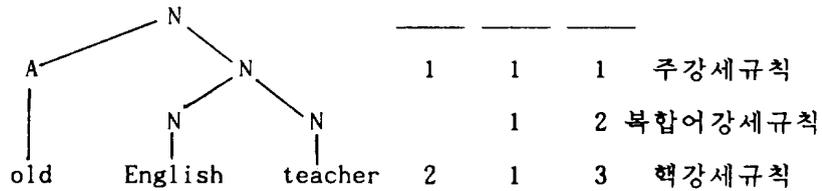


44) Sandford A. Schane(1973), *op. cit.*, p.101.

b) [NP#[A#old#A][NP#[#AEnglish#A][N#teacher#N]#NP]#NP]



c) [NP#[A#old#A][N#[N#English#N][N#teacher#N]#N]#NP]



(96)의 기저형으로부터 표면강세가 얻어지는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위의 숫자 표시로 된 강세 유도과정과 같다.

지금까지 제 1강세 위치를 결정하는 여러가지 규칙을 설정해 보았는데 이러한 강세규칙은 크게 주기적인 것(cyclical rules)과 비주기적인 것(non-cyclical rules)으로 나눌 수 있다. 한 단어의 강세형 유도과정에서 반복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주기적인 것이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비주기적인 것이라 한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주강세규칙, 접미어 강세규칙, 접두어 강세규칙, 복합어 강세규칙, 핵강세규칙 등이 있고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교체강세규칙, 강세조정규칙이 있다. 또한 강세규칙을 적용할 때는 1) 주강세규칙, 접미어 강세규칙, 접두어 강세규칙, 2) 교체강세규칙, 3) 복합어 강세규칙, 4) 핵강세규칙 순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규칙이 적용되는 길이 막혀 잘못된 강세형을 유도할 수 있다.

다음은 강세규칙을 활용하여 변형 순환의 방법으로 몇 단어의 제 1강세유도 과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97) 1주기 적용의 예

주기	규칙	[ex=hibit]	[mature]	[element]
1	Rule 1	적용 불가	1	적용 불가
	Rule 2	적용 불가	적용 불가	1
	Rule 6	1	적용 불가	적용 불가
강세형		exhibit	ma ¹ t ¹ ure	e ¹ le ¹ ment

(98) 2주기 적용의 예

주기	규칙	[[equ+al]i+ty]]	[[con=stitut(e)]i+on]]
1	Rule 5	1	적용 불가
	Rule 6	적용 불가	1
2	Rule 9	적용 불가	1 2
	Rule 5	2 1	2 1
	강세조정	3 1	3 1
강세형		e ³ qu ¹ ality	co ³ nstitu ¹ tion

(99) 2주기 적용의 예

주기	규 칙	[photo [graph]]	[[pro = duct]]
1	Rule 1	1	적 용 불 가
	Rule 6	적 용 불 가	1
2	Rule 7	1 2	적 용 불 가
	Rule 8	적 용 불 가	1 2
	강세조정	1 3	1 3
강 세 형		ph ¹ otogr ³ aph	pr ¹ od ³ uct

(100) 3주기 적용의 예

주기	규칙	[[demo[crat]]y]	[[[con=duct]iv(e)]i+ty]
1	Rule 1	1	적용 불가
	Rule 6	적용 불가	1
2	Rule 5	적용 불가	1
	Rule 7	1 2	적용 불가
3	Rule 5	2 1 3	2 1
	강세조정	3 1 4	3 1
강세형 ⁴⁵⁾		³ dem ¹ ocrácy ⁴	con ³ duct ¹ ivity

45) ³dem¹ocrácy⁴ 와 ³con¹ductivity의 실제 발음은 dem¹ocracy와 con³ductivity로 나타난다. 이는 제 1강세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모음약화보조규칙에 의한 현상인데 본 논문에서는 제 1강세와 관련된 규칙의 설정에 취지가 있으므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V. 결 론

지금까지 필자는 불규칙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강세현상이 음절구조, 파생구조 및 구문구조 등에 의해 결정되는 지극히 질서 정연한 현상임을 알아 보았고, 이를 토대로 제 1강세를 결정하는 강세규칙을 설정하는 과정을 보이면서 이를 여러 단어에 적용시켜 강세규칙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았다.

구조주의 언어학에 의한 강세 습득 과정은 분류학적 방법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비해 변형 생성음운론은 변형 순환의 원리에 입각하여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다 논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SPE의 강세 접근 방법은 기저형 설정에 의한 발음 표시(underlying phonological representation)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칙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음운론상 신기원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규칙을 이용하려는 것은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하는데 명백히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더우기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을 요구하지 않으며, 교사의 응용 노력이 전제되는 한 체계적인 강세 교육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규칙을 설정한다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키고 생각하게 하며 강세 결정 과정을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논문이 다룬 제 1강세를 설정하는 강세규칙과 그 활용의 예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Rule 1 (주강세규칙)

[1] 단어가 2음절 이상이고 마지막 음군이 약음군으로 끝나면
마지막에서 둘째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를 배당하고

[2]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를 할당한다.

E.g. *devélop, avóid, diréct, sevére, etc.*

Rule 2 (명사 강세규칙)

이완모음을 포함한 마지막 음군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은
부분에 주강세규칙을 적용한다.

E.g. *élément, horízon, lántern, typóon, etc.*

Rule 3 (접미어 강세규칙 I)

중립 접미어가 오는 단어의 제 1강세는 어간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제 1강세와 동일하다.

E.g. *mádnness, préttier, exprésses, decíded, etc.*

Rule 4 (접미어 강세규칙 II)

특수 접미어가 오는 단어의 제 1강세는 접미어의 유일한 모음에
제 1강세가 온다.

E.g. *lemonáde, enginéer, Chinése, picturésque, etc.*

Rule 5 (접미어 강세규칙 III)

이완모음으로 끝나는 단음절 보통 접미어가 오는 단어의 제 1강
세는 접미어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강세규칙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E.g. *príncipal, díligent, desírous, redúndant, etc.*

Rule 5a) 2음절 보통 접미어 -ancy, -ency은 접미어 -ant, -ent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E.g. impórtancy, rélevancy, emérgency, téndency, etc.

Rule 5b) 단어가 「at(e)+접미어」로 끝나면 -at(e)도 접미어로 간주한다.

E.g. génerative, álternative, áccuracy, antícipatory, etc.

Rule 5c) 2음절 보통 접미어 -ity, -ion, -ical은 -ty, -on, -al만을 접미어로 간주한다. 단, -ic은 -ical과 동일형으로 취급한다.

E.g. capácity, promótion, polítical, terrífic, etc.

Rule 5d) 단어가 -ory, -ary로 끝나면 이를 접미어로 간주한다.

E.g. cátegrory, áuditory, órdinary, mílitory, etc.

Rule 6 (접두어 강세규칙 I)

파생구조가 「접두어+의존어간」인 단어의 제 1강세는 어간에 주강세규칙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E.g. confér, permít, unfít, underfóod, etc.

Rule 7 (접두어 강세규칙 II)

파생구조가 [접두어[자립어간]]인 단어의 제 1강세는

[1] 어간이 단음절이면 접두어에 주강세규칙을 적용시키고

[2] 어간이 2음절 이상이면 어간에 적절한 강세규칙을 적용시켜 결정한다. 단, 접두어에 주강세규칙을 적용시킬 때 그 접두어가 'o'로 끝나면 이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E.g. páradox, phótograph, superhúman, áudiogram, etc.

Rule 8 (접두어 강세규칙 III)

파생구조가 [[접두어=의존어간]]인 품사 전환어의 제 1강세는 강세규칙을 두 번 적용시켜 결정한다.

E.g. permít, transfér, condúct, recórd, etc.

Rule 9 (교체강세규칙)

단음절 의존어간이나 특수 접미어로 끝나지 않는 3음절 이상의 단어는 적절한 강세규칙을 적용하여 그 마지막 음군의 모음에 제 1강세가 주어지면 이를 마지막에서 셋째 음군의 모음에 다시 배정한다.

E.g. récognize, cándidate, árgentine, idéntify, etc.

Rule 10 (복합어 강세규칙)

「단어+단어」인 복합어의 제 1강세는 그를 구성하는 각 단어에 적절한 강세규칙을 적용시킨 다음 앞에 나온 단어의 제 1강세의 위치에 다시 제 1강세를 배정한다.

E.g. chúrchyard, Énglish teacher, dárkroom, etc.

Rule 11 (핵강세규칙)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어구는 그를 구성하고 있는 각 단어에 적절한 강세규칙을 적용시킨 다음 가장 오른쪽에 있는 단어의 제 1강세 위치에 제 1강세를 다시 배정한다.

E.g. English téacher, dark róom, work hárd, etc.

참 고 문 헌

- 김 순 택(1991), "영어 운율 범주의 계층적 조직", 박사학위 논문, 충남 대학교 대학원.
- 김 종 훈(1985), "생성음운론의 강세 현상", 「논문집」, 제21집, 제주대학교
- 민 영 빈 외 2인(1989), *High School English 1*, 시사영어사
- 박 남 식(1970), "영어의 강세 규칙", 「언어교육」, 제2권. 제1호, 서울대학교 어학 연구소.
- 양 동 휘(1982), 「영어 음성학」, 범한서적주식회사.
- 이 계 순(1974), "영어의 운율과 모음의 음질", 「언어교육」, 제6권. 제1호 서울대학교 어학 연구소.
- 전 상 범(1985), 「생성 음운론」, 탑출판사.
- 채 준 기(1979), "생성 변형 문법 이론과 영어 교육의 관련성", 박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최 국 선(1977), "구조및 변형 언어학의 비교", 「논문집」, 제10집, 성신 여자사범대학 : 성신 인문 과학 연구소.
- 황 언 택(1978), "영어의 강세형 : 접미사와 제 1강세의 위치", 「논문집」 제10집 제주대학교.
- Bauer, L., Dienhart, J.M., Hartvigson, H.H. & Jakobsen, L.K.(1980),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Copenhagen : Gyldendal.
- Bloomfield, L.(1933), *Language*,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 Bronstein, A.J.(1960), *The Pronunciation of American English*,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s, Inc.
- Chomsky, N.(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 Moulton.
- _____.(1964), *Current Issues in Linguistic Theory*, The

- Hague : Moulton.
- Chomsky, N. & Halle, M.(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 Harper & Row.
- Halle, M. & Keyser, S. J.(1971), *English Stress : Its Form, Its
Growth, and Its Role in Verse*, New York : Harper & Row.
- Hockette, C. F.(1958), *A Course in Linguistics*, New York : The
Macmillan Co.
- Hwang, U. T.(1983), "A Spelling Approach to English Word
Stress",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Hyman, L. M.(1975), *Phonology : Theory and Analysis*, New
York:Holt, Rinhart.
- Jones, D.(1957),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Cambridge :
W.Heffer & Sons Ltd.
- Joos, M.(1961), "Linguistic Prospects in the United States",
*Trends in European and American Linguistics
1930l-1960*, Mohrman et al., eds.
- Kenyon, J. S.(1958), *American Pronunciation*, Ann Arbor:George
Wahr Co.
- Kurath, H.(1964), *A Phonology and Prosody of Modern English*,
Ann Arbor, Mich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Pike, K. L.(1945), *The Intonation of American English*, Ann
Arbor,Mich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Prator, C. H.(1957), *Manue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Schane, S. A.(1973), *Generative Phon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Trager, G.L. & Smith, H. L., Jr.(1957), *An Outline of English
Structure*, Studies in Linguistics, Occasional

Papers, No. 3, Washington :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The New World Comprehensive English-Korean Dictionary(1985),
Seoul : Si-Sa-Yong-O-Sa.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of the American language(1974),
2nd College Edition, Cleveland, Ohio:Collens World
Publishing.



<Abstract>

An Efficient Application of Stress Rules to Teaching English

Kim, Jo - Hyun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oon - Taik

Chomsky and Halle(1968) have argued in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that stress contour of the words and phrases regarded as unpredictable and independent one in the Structural Linguistics can be predictably stat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build stress rules of the words based upon the transformational cycles principle of *SPE* and help learners easily to acquire them in process of English learning. It will be assumed in building stress rules that the formatives can themselves be regarded as strings of consonants and vowels. There are simple and complex vocalic nuclei in vowels, being used as the phonetic symbol *i, e, ʌ, u, ɜ, ə* for simple vowel and *I, E, A, U, O* in *confide, feed, fade, feud, road* for the complex vowel. In addition, it is very important in building stress rules to distinguish between "weak cluster" and "strong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June, 1992.

cluster” in the following way. A weak cluster is a string consisting of a simple vocalic nucleus followed by no more than one consonants; a strong cluster is a string consisting of either a vocalic nucleus followed by two or more consonants of a complex vocalic nucleus followed by any number of consonants.

Abstract underlying representations of consideration in application of stress rules are generally very close to conventional orthography.

As the basis for the prediction of the stress contour, the following rules have been given in this paper.

Rule 1 (Main Stress Rule)

Assign main stress to

[1] the penultimate vowel if the last vowel in the string under consideration is non-tense and is followed by no more than a single consonant,

[2] the last vowel in the string under consideration if this vowel is tense or if it is followed by more than one consonant.

Rule 2 (Noun Stress Rule)

Apply Main Stress Rule to nouns ending in a nontense vowel followed by zero or more consonant, this last cluster being omitted from consideration.

Rule 3 (Suffixation Stress Rule I)

The position of main stress of words ending in neutral suffix is equal to that of the remainder of the words, since neutral suffix characteristically play no role in the placement stress.

Rule 4. (Suffixation Stress Rule II)

The main stress of words ending in specific suffix is assigned to the final syllable, namely, specific suffix under consideration.

Rule 5 (Suffixation Stress Rule III)

Apply Main Stress Rule to words with a monosyllabic regular suffix containing a lax vowel, omitting from consideration the final cluster.

Rule 5a) Bisyllabic regular suffix *-ency*, *-ancy* is equally regarded as monosyllabic suffix *-ent*, *-ant*.

Rule 5b) The sequence *-at(e)-* is regarded as part of the context(regular suffix) omitted from consideration.

Rule 5c) Regard *-i-* in regular suffix *-ity*, *-ion*, *-ical* as stem-forming element, and *-ic* is to be represented as the variant form *-ical*

Rule 5d) The sequence *-or-*, *-ar-* preceding suffix *-y* is regarded as part of the context(regular suffix) omitted from consideration.

Rule 6 (Prefixation Stress Rule I)

The primary stress of the words with the prefix-stem type whose stems are not independent words is assigned to the final formative(stem) of them, regardless of whether it contains a strong or weak cluster.

Rule 7 (Prefixation Stress Rule II)

Apply Main Stress Rule to

[1] the prefix that is followed by monosyllabic stems of no independent words,

[2] the stems of more than bisyllables that are independent words.

Rule 8 (Prefixation Stress Rule III)

Apply Main Stress Rule to the string(Prefix) preceding the final stressed syllable to which primary stress is assigned in verbs of the prefix-stem type in case of nouns derived from verbs.

Rule 9 (Alternating Stress Rule)

Assign primary stress to the vowel of the antipenultimate syllable when more than trisyllabic words receive final primary stress by Main Stress Rule except those of the specific suffix and the monosyllabic dependent-stem.

Rule 10 (Compound Stress Rule)

Assign primary stress to the first sonority peak of the two peak, reducing by one all other stress levels in the words under consideration.

Rule 11 (Nuclear Stress Rule)

Assign primary stress to the second sonority peak of the two peak, reducing by one all other stress levels in the phrase under consideration.

부록 I

* 강세 규칙의 적용 사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I 적용)

Rule 1 (주강세규칙)

absurd	alter	annoy	argue
borrow	capture	conquer	determine
entertain	eviltain	extra	locate
maintain	major	manage	obey
object	offer	perform	perplex
perish	persist	polish	polite
reckon	scatter	slender	sprinkle
struggle	suffer	supreme	surround
suspect			

Rule 2 (명사 강세규칙)

affair	algebra	area	aria
athlet	avenue	bargain	baron
abttle	bosom	bucket	bundle
calorie	carton	challenge	civics
college	colonel	conquest	cotton
credit	crisis	curtain	custom
diesel	disease	echo	fellow
handle	heaven	honey	jumble
knowledge	level	limit	menu
method	model	negro	notice
opera	organ	pagoda	palette
pattern	peanut	pilot	planet
purpose	puzzle	pyramid	rabbit
rainbowe	robin	rocket	ruin
schedule	solo	soverign	sparkle
spectacle	spirit	statue	status
suburb	worship		

Rule 3 (접미어 강제규칙 I)

Rule 3 + Rule 1

achievement	actor	advanced	amusing
artist	badly	badly	bowling
builder	burner	ceiling	childish
childish	cloudless	cloudless	cloudy
cloudy	conqueror	cooker	countless
crossly	crossly	customer	deadly
deadly	destined	destined	development
directly	directly	dreamy	dreamy
driver	dusty	dusty	emperor
endless	endless	exactness	favorable
favorable	former	governor	grateful
greatful	greatness	hanger	hilly
hilly	hopeful	hopeful	inventor
killer	lightling	lonely	lonely
manager	marriage	merger	miserable
miserable	movement	naked	naked
neighborhood	novelist	observer	officer
organist	package	painter	painting
peaceful	playful	promptly	reasonable
responsible	safely	sleepy	snowy
sunny	utterly	valueable	wicked
willing	windy	wooden	

Rule 3 + Rule 5

actually	aparently	automatically	capitalism
capitalist	especially	eternally	journalism
journalist	manufacturer	personally	terribly

Rule 3 + Rule 6

advanced	advancement	amusing	appointer
ashamed	container	defeatist	disappointing
discoverer	exactness	installment	incredible
impossible	probably	producer	receiver
renowned	reporter		

Rule 3 + Rule 9

absolutely fascinating imediately intimately
recognizable

Rule 4 (접미어 강제규칙 II)

cigarette engineer millionaire picturesque

Rule 5 (접미어 강제규칙 III)

absence	acquaintance	actress	admiral
advantage	advanture	almighty	apology
appearance	attitude	autobiography	average
barometer	beauty	beggar	brighten
brilliant	bumper	canary	centural
century	chemical	christian	citizen
clover	colony	conference	conscience
constant	convenience	convenient	creature
cruelty	curly	current	deputy
detective	difference	dignity	discovery
distance	distant	donor	duty
economy	empty	error	factory
familiar	feature	fiber	figure
furniture	fury	gallery	general
generous	glory	goddess	grocer
grocery	horrible	hostess	humor
ideal	imperial	importance	incident
indifferent	individual	influence	instant
insurance	jealous	journal	lazy
leafy	lecture	legal	lofty
magnificent	manner	manufacture	material
mayor	medal	memorial	metal
mighty	mineral	misery	monster
monster	musical	nature	nomal
official	opponent	oriental	original
patience	patient	performance	piety
pillar	pitiful	pleasure	poetess
poietry	popular	princess	professor

prosperous	psychology	refinery	register
reverence	rocky	rubber	sculptor
serious	shiny	significant	silence
silly	social	society	spectator
steady	stony	suspicious	technology
temper	terror	thirsty	thunder
tiny	total	tower	treasure
vanity	variety	various	venture
waitress	wonder		

Rule 5b)

accuracy	alternative	cooperative	cumulative
decorative	imaginative	literature	

Rule 5c)

action	activity	addition	admission
artistic	attention	attic	attraction
ceramic	champion	charity	collection
conclusion	condition	confusion	construction
convention	corporation	decision	depression
dramatic	economic	electrical	emotion
exhibition	fiction	foundation	grammatical
immigration	impression	information	inspiration
location	logic	million	nationality
necessity	nonfiction	observation	occasion
occupation	olympic	opportunity	panoramic
passion	personality	philosophical	plastic
poetic	political	popularity	population
possibility	practical	production	profession
prosperity	public	quality	quantity
reaction	realistic	reception	recognition
regulation	religion	reputation	romantic
scenic	scientific	suspicion	technological
traditional	translation	typical	university

Rule 5d)

extraordinary	imaginary	literary	military
missionary	ordinary	secretary	

Rule 6 (접두어 강제규칙 I)

alive	compact	conduct	confused
contrast	convenience	describe	desert
design	desire	despair	despise
destroy	detail	display	distract
dislike	endure	engage	exclaim
exist	export	import	impress
improve	include	interrupt	predict
prefer	preserve	prevent	produce
product	profound	pronounce	provide
rearrange	refine	reflect	refuse
regard	remark	remote	renowned
report	reproduce	translate	transport
undertake	underjust	unkind	unknown
unlike	unreal		

Rule 7 (접두어 강제규칙 II)

complex	forehead	forward	impact
insect	instinct	interview	overeat
overweight	profit	prospect	research
subway	suburb		

Rule 9 (교체강제규칙)

accurate	amateur	anecdote	atmosphere
celluloid	complicate	compromise	concentrate
decorate	diamond	discipline	document
element	elevate	exquisite	fortunate
gasoline	hesitate	identify	medicine
monument	motivate	orient	sacrifice
satisfy	substitute		

Rule 10 (복합어 강제규칙)

airport	airway	birdseed	broadcasting
---------	--------	----------	--------------

chestnut	congressman	courthouse	cupboard
daylight	driveway	footstep	gateway
granddaughter	grasshopper	handshake	highlands
hilltop	honeymoon	household	ironworks
knapsack	know-how	lipstick	nonsense
passport	platform	railroad	shipyard
shopkeeper	shorthand	sidewalks	sightseeing
skyline	songbird	sportsmanship	strawberry
stubborn	sunset	teamwork	taxicab
textbook	tiptoe	toothbrush	typewriter
wartime	woodcut		

부록 II

* 강세에 영향을 미치는 접사 목록 (고등학교 교과서 중심으로)

1. 접두어 (Prefix)

Form	Meaning	Example
a-	in a condition	asleep
ante-	before	anteroom
anti-	against	anti-aircraft
arch-	first; chief	archbishop
astro-	star	astronomy
auto-	self	autobus
bi-	two	bicycle
biblio-	book	bibliography
bio-	life	biography
co-, con-	together	cooperate, conduct
col-, com-		collect, combine
contra-	against	contradict
cosmo-	world	cosmological
counter-	against	counterpart
de-	down; away from	descend
di-	two	dioxide
dis-	apart; away	disappear
	not	dishonest
en-, em-	get into; cause to be	endanger, enlarge
ex-	out of; from	exit, excess
extra-	outside	extraordinary
fore-	front	forehead
hyper-	above	hypercritical
hydro-	water	hydroplane
in-, il-	not; into	infinite, income
im-, ir-		
inter-	between	international
	mutual	interact

intra-	within	intramural
macro-	long; large	macrocosm
mal-	bad	malice
mid-	middle	midbrain
micro-	small; enlarging	microcosm, microphone
mini-	little	miniskirt
mono-	one	monorail
multi-	many	multichannel
neo-	new	neoclassic
non-	not	nonhuman
out-	better, faster longer than	outgrow outlive
pan-	all	pan-American
photo-	light	photograph
poly-	many	polysyllabic
post-	after	postwar
pre-	before	prewar
pro-	forward, acting for supporting	progress, pronoun procommunist
pseudo-	false	pseudonym
re-	again	rebuild
retro-	behind	retroflex
semi-	half	semicircle
sub-	under; slightly	subway, subhuman
super-	over	superman
syn-, sym-	together	synchronize
trans-	across	transfer
tri-	three	triangle
ultra-	beyond	ultraliberal
uni-	one	unique
vice-	deputy	vice-president

2. 접미어 (Suffix)

Form	Meaning	Example
-able, -ible	capable of being inclined to	acceptable peaceable
-acy	state	delicacy
-ade	the act(result) of	blockade, lemonade
-age	the act of	marriage
-al	the ace of	refusal
-ial, -ical	like; suitable for	editorial
-ance, -ence	the state of	resistance
-ancy, -ency	=-ance, -ence	importancy, decency
-ant, -ent	that has(shows)	significant
-ary	relating to a person(thing) connected with	reactionary dictionary
-ate	become	matuate
-ation	characteristic of the state of something connected with the action	collegiate fixation foundation
-cy	quality	normalcy
-dom	condition, domain	freedom, kingdom
-ee	a person affected by by the action of	appointee
-eer	a person engaged in	engineer
-er, -ar, -or	a person (thing) having to do with	receiver, steamer
-ery, -ry	the act(products) of	slavery, millinery
-ese	a native(language) of	Chinese
-esque	having the quality of	picturesque
-ess	female	lioness
-ette	little	cigarette
-fold	so many parts	twofold

-ful	full of	joyful
-hood	condition	childhood
-ian, -an	one belonging to	American, Darwinian
-ic	produced by	atomic
-ify, -fy	make into	beautify
-ing	something produced	painting
-ish	belonging to: tending	Spanish, foolish
-ism	doctrine	Calvinism
-ist	expert in	Calvinist
-ite	inhabitant, descendant	Israelite
-ity	condition	rapidity
-ive, -ative	having the quality of	attractive
-itive		
-ize, -ise	cause to become	symbolize
-less	without	harmless
-let	small	booklet
-like	like	childlike
-ly	like, happening in a manner	deadly, happily
-ment	condition, act, result	disappointment
		movement
		pavement
-ness	quality	happiness
-ory	having the nature of place(thing) for	condictory
		laboratory
-ous	full of	dangerous
-ship	quality	friendship
-sion	=ation	discussion
-some	tending to	burdensome
-tion	=ation	correction
-tude	condition	attitude
-ure	result, instrument	composure, legislature
-ward[s]	in a direction	onwards
-wise	in a direction	lengthwise
-y	little, like	daddy, silky